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9 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巨人型 說話의 研究

國語國文學科

金 暎 暻

1990

# 巨人型 說話의 研究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0年 5月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金 暎 暻

# 金 暎 暻 의 碩 士 學 位 論 文 을 認 准 함

指導教授 姜 秦 玉



審查委員 李 慧 淳



정 하 영



강 진 옥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 목 차

|                        |    |
|------------------------|----|
| 논문개요 .....             | I  |
| I. 서론.....             | 1  |
| II. 거인설화의 존재양상.....    | 5  |
| A. 자료의 성격과 변이.....     | 5  |
| 1. 외모중심형.....          | 5  |
| 2. 행위중심형.....          | 9  |
| B. 구조와 의미.....         | 22 |
| C. 거인설화의 모티프.....      | 26 |
| III. 거인형성화의 존재양상.....  | 29 |
| A. 자료의 성격과 변이.....     | 29 |
| 1. 오늬힘내기 설화.....       | 29 |
| 2. 제주도 장수할망 설화.....    | 31 |
| 3. 방귀쟁이들의 방귀시합 설화..... | 33 |
| 4. 제주도 밥장수 설화.....     | 36 |
| 5. 호랑이 잡은 밥장수 설화.....  | 39 |
| 6. 방귀쟁이 며느리 설화.....    | 44 |
| B. 구조와 의미.....         | 56 |
| C. 거인설화모티프의 계승.....    | 62 |
| IV. 모티프의 변모양상과 의미..... | 67 |
| A. 힘내기모티프.....         | 67 |
| B. 대식모티프.....          | 75 |
| C. 배설모티프.....          | 80 |
| V. 결론.....             | 87 |
| 참고문헌.....              | 91 |
| ABSTRACT.....          | 97 |

## 논 문 개 요

이 논문은 건국신화 이전의 상고대에 관한 신화적 잔영이 남아 있는 거인설화와, 거인형설화로 칭할 만한 일군의 장수설화에 관한 연구이다.

거인설화는 현재 신성성을 거의 상실하고, 파편신화적인 전설·민담의 형태에 여러 내용이 담겨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원래는 과거 우리 민족의 천지창조신화였던 것으로 보인다. 거인설화의 이와 같은 성격은 하위유형인 산천형성형 거인설화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거인이 다른 신화적 존재와의 다툼에서 패배하는 대결형 거인설화에는 거인설화의 신화적 성격이 쇠퇴하는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사냥형 거인설화에는 배설의 결과 산천을 형성했던 생산성이 거인대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변용되어 있다. 또한 단순설명담의 형태로 되어 있는 까닭에 신화적 성격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졌던 외모중심형 거인설화도 교술무가의 讚神에 비견되는 신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거인설화의 전승을 가능하게 하는 주된 전승소는 모티프이다. 거인설화에는 ‘거인’이라는 특이한 인물형을 기본으로 하여 파생, 발전된 여러 모티프가 나타난다. 이 가운데 ‘힘내기’, ‘대식’, ‘배설’의 세 모티프가 일군의 장수설화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주목된다. 거인설화의 모티프를 계승하고 있는 이 설화들을 거인설화와의 연계하에 “巨人型說話”로 칭했다. 힘내기모티프를 계승한 거인형설화에는 “오누힘내기”, “제주도 장수할망”, “방귀쟁이들의 방귀시합”이 있고, 대식모티프를 계승한 거인형설화에는 “제주도 밥장수”, “호랑이 잡은 밥장수”가 있으며, 배설모티프를 계승한 거인형설화에는 “방귀쟁이 며느리”가 있다.

본고에서는 거인설화를 원형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거인설화와 거인형설화에 나타나는 세 모티프의 변모양상과 의미를 고찰했다. 관계되는 서사무가와 문헌설화도 보조자료로서 활용하였다.

주체와 형태 그리고 결과의 세 요소로 각 모티프를 살펴 본 바에 따르면, 각 모티프의 주체는 신인에서 장수로 변모하고 있다. 이것은 거인설화가 일군의 장수설화와 연계되는 근거와도 상관이 있는 것이다. 또 주체의 체구가 거인에서 왜소화되는 쪽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현실적인 합리화에 그 원인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설화의 전승이 외모보다는 행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각 모티프의 형태는 대체로 일의 범위가 축소되고, 원래의 의도가 약화되면서 이야기 자체의 흥미 쪽으로 전개되는 변모를 보이고 있다.

각 모티프의 결과에는 장르에서 비롯되는 세계관의 차이에 의해 변모가 일어나고 있다. 동일한 모티프를 수용하지만 그 장르가 무엇인가에 따라 형태와 의미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모티프는 설화 아닌 꿈이나 속담, 민속 등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다. 설화가 먼저인지 민간 속신이 우선하는 것인지 그 선후관계를 가리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이들은 상호 연관 속에서 유지되어 오는 신화적 모티프의 지속적 편린으로 이해된다.

## I. 서론

신화는 구비문학의 다른 장르에 비해 연구가 일찍 시작되었던 까닭에 그 성과 또한 다각적인 방면에서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로 구획되는 최근의 신화연구에서는 현재의 구전설화유형 중에서 신화적인 흔적이 나타나는 설화들에 대한 신화적 시각에서의 접근이 시도되고있다.<sup>1)</sup> 이것은 70년대 이후 한국설화 분류의 기본적인 틀이었던 3분법의 경직성<sup>2)</sup>으로부터 벗어난 것으로서, 보다 자유롭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설화를 연구하려는 경향이라 하겠다. 더불어 신화가 서사문학의 원천이라는 기존의 의의도 새로운 의미에서 다시 깊이있게 천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거인설화”를 주목하게 되었다. 제주도의 설문대할망으로 대표되는 거인설화는 거인이 산천을 형성하고, 강이나 다리를 만들고, 다른 신화적 존재와 싸우며, 자신의 식량을 구하는 등의 거인의 다양한 행위에 대한 이야기이다. 거인설화는 형식상 신화로 분류되고 있기는 하지만, 신성성을 상실하고 전설이나 민담의 형태로 전승되어 오는 까닭에 사실상 신화로 인정받지는 못해왔다. 또 전승되는 자료의 형태가 파편적이므로 연구자들의 관심도 그리 끌지 못했던 설화유형이다.

거인설화에 대한 연구는 6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몇 편의 소논문으로 언급되었으

1) 서대석(1986), “구령덩덩신선비의 신화적 성격”, 「고전문학연구」제 3 집, 고전문학연구회

강진옥(1986), “구전설화 유형군의 존재양상과 의미충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미간행)

천혜숙(1987), “전설의 신화적 성격에 관한 연구”, 계명대 박사학위청구논문(미간행)

김대숙(1988), “여인발복 설화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미간행)

이수자(1989), “제주도 무속과 신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미간행)

2) 3분법은 1970년 장덕순이 「한국설화문학연구」에서 시험삼아 한국설화에 적용해 본 것이 「구비문학개설」에서 구체화되면서 한국설화분류의 기본 체계로 자리잡아 왔다. 그러나 3분법은 일면 타당하고 편리한 점이 있는 반면, 개별설화의 전승양상을 무시한 획일적인 틀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며, 이 방면에 처음 관심을 가진 연구자는 장주근이다. 그는 「한국의 신화」에서 문헌전국신화를 비롯, 구전신화와 무속신화 자료를 조사 정리함으로써 신화연구의 대상을 확대시켰는데, 구전신화로 제주도의 설문대할망설화와 전국 각지의 거인설화들을 들고 거인설화가 원래는 천지개벽신화였으나, 신성성을 상실하고 전설·민담으로 장르변이했음을 추정했다. 또 일본·중국 북유럽 등의 설화에서도 거인이 천지개벽신화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음을 거론했다.<sup>3)</sup>

장주근은 계속해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제주도와 일본의 거인설화를 비교한 뒤, 양 지역의 거리가 가깝고 설화의 내용이 유사한 점을 들어 일본의 거인설화는 한국에서 전파된 것이라고 추정하는 데까지 나아갔다.<sup>4)</sup>

임동권은 제주도 설문대할망설화 자료를 소개하면서 그것이 원래는 육지의 거인설화와 같았을 것으로 보았다. 즉 육지에서는 전승이 일찍 쇠퇴했으나, 제주도에서는 원형을 지니고 있기도 하고 윤색되어 향토화하거나 과장되는 등, 흥미롭게 변모했다고 보았다.<sup>5)</sup>

단편적인 언급이기는 하지만, 장덕순의 논의도 참고할만 하다. 그는 거인설화의 현재 전승양상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면서, 장사설화를 신성성이 결여된 거인설화로 보는 관점을 제시했다.<sup>6)</sup>

조동일은 한국신화를 존재양상에 따라 분류하는 가운데 거인설화도 한 항목에 포함시켰다. 제주도의 선무대할망으로 대표되는 구전거인설화는 거의 전설처럼 되었고, 전설로서의 전승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거인설화가 과거의 신화였음을 인정했다.

3) 장주근(1961), 「한국의 신화」, 성문각 pp. 1-12

4) ———(1967), “한국구비문학사上”, 「한국문화사대계」,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969), “제주도 천지창조설화의 문화영역성”, 「제주도」38호

5) 임동권(1964), “선문대할망설화고-제주도 민속에 나타난 거녀담-” 「제주도」17호

6) 장덕순(1973), “우주론·세계상”, 「한국사상대계」I 문학 예술사상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그러나 거인설화는 시련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서사문학작품으로서 중요한 의의는 갖지 못한다고 보았다.<sup>7)</sup>

거인설화에 대한 기존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대개의 연구자들이 거인설화가 원래 신화였으나 전설이나 민담으로 장르변이를 했다는 쪽으로 인식은 하고 있지만 깊이 있는 이해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가 육지의 거인설화를 배제한 상태에서 제주도의 거인설화인 설문대할망설화만을 대표적인 자료로 삼고 있거나, 육지와 제주도의 거인설화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자료가 산발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거인설화의 전체적인 존재양상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전체 거인설화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논의를 전개하는 데서 오는 타당하지 못한 견해도 발견된다. 단편적인 연구들이 거인설화의 전모를 밝혀주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거인설화는 전국신화이전의 상고대에 관한 흔적이 많이 남아 있으며, 제주도 등지에서는 아직도 많은 지형이 거인과 관련하여 이야기되고 있는 등 전승이 활발한 편이므로, 중요한 자료로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 뿐만아니라 거인설화는 “거인형설화”로 칭할 만한 일군의 장수설화의 원형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존재양상 및 특성의 규명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거인설화와 거인형설화를 좀 더 포괄적 의미인 “巨人型說話”로 칭하고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Ⅱ장에서는 거인설화의 자료를 개관하여 자료의 성격과 변이를 보고, 거인설화의 하위유형에서 추출된 유형구조와 의미를 살피며, 중심모티프들을 살펴 보므로써 거인설화의 존재양상을 규명한다. Ⅲ장은 구전거인형설화의 존재양상에 대한 논의이다. 먼저 거인형설화에 해당되는 장수설화들의 전반적인 성격과 변이를 살펴 보고, 각 설화의 유형구조를 추출하며, 거인설화에서 계승한 세 개의 중심모티프로 거인형설화를 나누어 본다. Ⅳ장은 거인형설화로 이어지는 거인설화의 계승과 변모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진

7) 조동일(1978), “신화의 유산과 그 변모과정”, 『우리문학과 의 만남』, 홍성사

행된다. IV장에서는 II장과 III장에서 규명된 거인, 거인형설화의 존재양상을 토대로, 특히 거인, 거인형설화의 주된 전승소인 모티프를 중심으로 하여 거인, 거인형설화의 변모양상과 의미를 살펴 보기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거인설화의 전체적인 전승 상황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거인설화의 이해에서 그치지 않고, 신화적 유산이 풍부하지 못한 우리 학계에 일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거인형설화로 채택된 설화들도 지금까지의 연구에서와는 다른 관점에서 해석될 것이다. 특히 단순히 소화로만 인식되어 왔던 “호랑이 잡은 밥장수”설화나 “방귀쟁이 며느리”설화나 “방귀쟁이들의 방귀시합”과 같은 설화는 거인형설화라는 유형군 차원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될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구비문학대계」를 비롯하여 여러 민담집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한국지명총람」「도지」「군지」등에 수록된 설화들을 주요 대상자료로 삼았다. 그 밖에 서사무가와 「삼국사기」「삼국유사」「고려사」 등의 문헌자료도 활용했다.

거인설화의 자료는 83편이고, 기존연구의 성과에 의존했던 오뉘힘내기설화 자료를 제외한 거인형설화의 자료는 97편으로 거인・거인형설화의 자료는 모두 170편이다.

## Ⅱ. 거인설화의 존재양상

오늘날 전승되고 있는 거인설화는 장르와 내용 양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설화의 이해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인설화의 존재양상을 규명하기 위한 일차적인 시도로서, 외모와 행위라는 기준항에 따라 거인설화의 전승 형태를 파악한 뒤, 이야기의 내용에 따라 하위유형을 설정한다. 이 유형의 해당 설화로는 구비문학대계에서 33편, 기타 설화집에서 50편, 총 83편의 자료가 수집되어 있는데 존재양상이 잘 규명되기 위해서도 이 시도가 유형 분류의 차원에 이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장에서는 각 유형별로 설화의 외연적 측면인 변이양상과 내포적 측면인 구조를 살펴피므로써 거인설화의 존재양상을 규명한 다음, 거인설화를 이루는 주된 모티프들을 추출하여 거인형설화와의 연계성을 상정하기로 한다.

### A. 자료의 성격과 변이

#### 1. 외모중심형

외모와 행위라는 기준항에서 볼 때 거인설화는 외모중심형과 행위중심형<sup>8)</sup>으로 대별된다.

외모중심형 거인설화는 전승의 관심이 거인의 외모, 즉 크기 묘사에 있으므로 행위도

---

8) 외모형이나 행위형이라 하지 않고 ‘~중심형’이라고 칭한 것은 거인설화가 외모에 대한 이야기와 행위에 대한 이야기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둘중의 하나에 전승의 초점을 두면서 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인의 크기를 묘사하기 위한 수사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형태가 단순하며 설명적이다  
대상자료는 다음과 같다.

- (1) 제주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제주도전설지」68. 선문대할망(Ⅳ)
- (2) 제주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제주도전설지」 68. 선문대할망(Ⅱ) ①<sup>9)</sup>
- (3) 제주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제주도지」下 860. 설문대할망1
- (4) 제주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제주도지」下 861. 설문대할망2
- (5) 제주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제주도전설지」 68. 선문대할망(Ⅱ)②
- (6) 장주근 「한국의 신화」 5. 설문대할망2
- (7)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363. 마고선녀바위<sup>10)</sup>
- (8) 대계 6-5 174. 마고할미
- (9) 대계 1-7 756. 마귀할멈과 정포
- (10) 대계 8-1 342. 하청하브름성(마고할미성)
- (11) 대계 8-12 182. 제주도키다리
- (12)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평안북도편Ⅱ 265. 키가 큰 장길산
- (13) 장기근外역 「세계의 신화」Ⅳ 85. 수로왕의 根橋와 허황후의 陰席
- (14) 대계 8-2 33. 김수로와 허황후

각편(1)부터 (4)는 제주도 거인설화의 주체인 설문대할망<sup>11)</sup> 이야기이며, 각편(5)에

---

9) 설문대할망설화는 설문대할망의 행적이 단편적인 에피소드 형태로 채록되어 채록자가 임의대로 설정한 제목아래 적당히 묶여있다. 여기에도 두 자료가 같이 들어있는데, 본 논의의 전개상 따로 볼 필요가 있으므로 두 설화를 ①과 ②로 나누었다.

10) 제주도 문화공보부담당관실 「제주도전설지」p. 68의 설문대할망감투바위이야기도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11) 설문대할망의 명칭은 자료에 따라 선문대, 설판두, 세명뒤, 설문대 등으로 약간씩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설문대할망’으로 통칭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서 (8)은 육지 거인설화의 주체 가운데 한 명인 마고할미의 이야기이다. 각편 (9)와 (10)은 설문대나 마고할미와 달리 한 유형의 거인설화에만 등장하는 장길손의 이야기이다.

외모중심형 거인설화에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거인의 거대한을 말하기 위해서 방증의 대상으로 자연물을 끌어 오는데, 각편 (1)과 (5)에서는 그것이 바위로 되어 있다. 각편 (1)에서는 등잔처럼 생긴 바위를 보고 설문대할망이 길삼할 때 쓰던 것이라고 한다. 각편 (5)에서는 위쪽에 구멍이 뚫려 있는 뽕족한 모양의 바위를 보고 마고선녀가 허리에 매달고 있던 장식품이라고 한다.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거인의 체구를 자연물에 빗대어, 미루어 짐작하게 하려는 것이다.

각편 (6)은 키가 너무 커서 옷을 제대로 해 입을 수 없었던 설문대할망이 속옷이라든가 벌 만들어주면 제주도에서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했다가, 속옷이 완성되지 못하자 다리놓기도 중단해버렸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에는 다리놓기라는 거인의 위력 공사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위력 공사의 시작과 중단이 모두 거인의 거대한 체구로 인한 결핍과 결핍해소의 시도에서 비롯되고 있어서 외모중심형에 포함시켰다.

거인의 거대한 체구는 옷 또는 밥의 결핍으로 상징된다. 설문대할망설화에서는 옷의 결핍이 많이 나타나며, 옷은 속옷인 경우가 많다. 이것은 설문대할망이 여성이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문대할망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속옷이라 할지라도 백 동의 명주가 필요하고, 제주도의 옷감을 모두 모아도 그만큼은 안되었으므로 속옷은 미완성에 그치고 만다. 속옷이 완성되지 않자 설문대할망도 다리놓기를 중단하는데, 제주도 조천리에 있는 엉망매코지는 그때 놓다만 다리의 흔적이라고 한다.

같은 맥락이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자연의 공간을 이용하여 거인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설화들이 있다. 각편 (2)에서는 설문대할망이 제주도의 한라산과 산방산을 던고 서서 태평양에 빨래했다고 한다.<sup>12)</sup> 또 설문대할망은 신발을 벗고 치마를 살짝 들

12) 설문대할망의 빨래이야기는 설문대할망이 던고 섰다는 지명을 달리하여 여러 편의 설화가 전승되고 있다. 이것은 증거물의 최소요건이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되도록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지역이면 되므로, 증거물의 구속이 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서 제주와 목포사이의 바다를 성큼성큼 걸어다닌다. 제일 깊은 곳이라고 해도 설문대할망에게는 무릎에 닿는 정도였다고 한다. 거인이 바다를 걸어 다녔다는 것은 육지의 거인설화에도 나타난다. 각편(9)의 화자는 설화의 초두에서부터 마고할미의 키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마고할미의 키가 얼마나 컸는지는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고 하면서도, 화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일 깊고 넓은 바다와 지역들을 마고할미의 움직임과 관련시켜 이야기하므로써, 마고할미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 상상하게 만든다.

그러나 거인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이와 같이 긍정적인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각편(3) (4) (5) (9) (10) (11) (12)에는 외모중심형 거인설화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드러난다. 각편(9)에서 마귀할멈은 온 바다를 다 돌아다녔어도 발등에 차는 곳이 없었지만, 정포에 왔을 때 정강이가 쑥 들어가자, 거기가 정통이라는 의미에서 정포라고 칭했다고 한다. 거인의 크기보다는 지명의 유래를 밝히는 쪽으로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각편(10)도 이와 비슷하다. 오만 바다를 다 돌아다녀도 마고할미에게는 발목물밖에 안 났는데, 갯바다에 왔을 때 중의 밑이 젖었다고 한다. 거인의 크기보다는 갯바다의 깊이쪽에 더 관심이 나타나 있다. 각편(9)와 (10)에는 거인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면서, 처음에는 거인의 크기를 말해주는 증거물이었던 것이 오히려 주된 대상으로 전도되어 있다. 그 결과 ‘정포’와 ‘갯바다’의 깊이가 강조되는 대신, 거인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각편(5)에서 이것은 거인의 죽음이라는 한계로까지 나타난다. 한라산 물장오리의 깊이를 알아보기 위해 거기에 들어간 설문대할망이 아직까지 못 나오는 것으로 봐서 아무래도 죽은 것 같다는 내용에는 거인이 크다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도 있을 수 있으며, 거인도 죽는다는 한계가 반영되어 있다.

각편(3)과 (4)에는 거인의 크기를 묘사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회화화가 나타난다. 각편(3)에서는 설문대할망이 서면 한라산보다 더 커서 머리가 잘 보이지 않았고, 한라산을 베개삼아 누우면 발이 성산포 앞바다에 닿아서 발로 물장난을 했다고 한다. 각편(4)에서는 서귀포 법환리 앞바다의 바위섬에 나있는 큰 구멍을 설문대할망이 발을 뻗을 때 엄지 발가락이 닿아서 생긴 것으로 이야기한다. 이것은 각편(11) (12)

에서 더욱 회화화되어 나타난다. 각편(11)과 (12)는 외모중심형으로 발전된 장길손계 설화<sup>13)</sup>로 생각된다. 원래 장길손계 설화에서 거인은 농사를 망친 것 때문에 나라 밖으로 축출을 당하는데, 각편(11)과 (12)에는 축출대신 곤장형이 나타나며, 축출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인배설의 생산적인 행위 또한 탈락되어 있다. 대신 각편(11)과 (12)는 거인의 외모에 전승의 초점을 맞추어서 크기를 강조하는 설화로 변화, 발전된 것이다. 각편(11)의 거인은 머리는 서울에, 볼기는 해룡 갯머리에, 발은 제주도 한라산에 있어서, 볼기를 맞고 일어나자 도로 제주도 한라산에 서 있을 정도로 체구가 크다. 각편(12)의 거인은 이보다 더한 거인으로, 곤장을 치기 위해 천리마로 하루를 달렸어도 엉덩이를 찾지 못해 할 수 없이 장판지를 때렸다 할 정도이다. 거인의 거대한 체구가 흥미위주로 회화화되어 있다.

각편(17)과 (18)에서는 거인의 외모 가운데 성기의 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 크기가 거대했음을 묘사하기 위해서 성기로 다리를 놓았다거나 잔치집의 자리로 깔았다거나, 다리를 건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포망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야기의 대상이 성기인 것도 우스운데, 성기로 위력공사를 담당하게 하여 더욱 회화화시켰다.

## 2. 행위중심형

행위중심형 거인설화는 전승의 초점이 거인의 외모에 있지 않고, 거인의 행위에 있는 설화이다. 이때 거인의 행위는 생산적이며 기능적인 성격을 띤다. 행위중심형의 거인설화는 행위의 성격에 따라 산천형성형, 대결형, 사냥형의 세가지 하위유형으로 구별해 보았다. 산천형성형은 거인이 산천을 만드는 설화이고, 대결형은 거인과 다른 존재가

---

13) 행위중심형 거인설화의 하위유형인 산천형성형에서 다루어진다.

주도권 획득을 위해 싸우는 설화이며, 사냥형은 성기와 배설물을 이용하여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는 설화이다. 순서에 따라 해당자료를 제시하고 살펴 보기로 한다.

가. 산천형성형

- (1) 장주근 「한국의 신화」 6. 설문대할망6
- (2) 장주근 ————— 7. 설문대할망9
- (3) 대계 2-1 568. 노고할미바우이야기
- (4) 대계 8-9 1130. 임의산이 생긴 이야기
- (5) 대계 8-2 409. 마고할매와 피왕성
- (6) 대계 1-5 511. 형도의 탑이야기
- (7) 대계 6-12 692. 천마산의 유래
- (8) 대계 8-6 213. 세상모양이 생긴 이야기
- (9) 김소운 「The Story Bag」 17. Mountains and Rivers
- (10) 한상수 「한국인의 신화」 185. 이 세상의 맨 처음
- (11) 경상남도 「협천댐수몰지」 579. 시바우유래
- (12) 정인섭 「우리고담」 14. The mountain and the rivers
- (13) 한상수 「한국인의 신화」 180. 장길손
- (14) 문공부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남편) 744.
- (15) 한상수 「한국인의 신화」 191. 선문대할망
- (16) 제주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제주도전설지」 소섬의 유래
- (17) 안악군민회 「안악군지」483. 마구바위
- (18) 대계 8-8 125. 굿질의 지명유래
- (19) 대계 9-1 201. 설문대할망

제주도에는 설문대할망이 만들었다는 산과 바다, 섬, 바위 등의 자연물이 많아서 제주

도 전체가 설문대할망의 작품이라고 할 정도이다. 각편(1)에서는 설문대할망이 치마폭에 싸다 부은 흙은 한라산이 되고, 치마폭의 뚫어진 구멍에서 샌 흙들은 섬안에 무수히 흩어져 있는 작은 산들이 되었다고 한다. 각편(2)의 표선면해안은 본래 물이 깊어서 파도가 일면 바닷물이 마을까지 들어오고 아이들이 해마다 빠져 죽는 위험한 곳이었으나, 명주 속옷을 받은 설문대할망이 나무와 모래로 바닷가를 메워준 결과 오늘날과 같은 백사장이 만들어졌다. 조수가 나간 다음에 백사장의 모래를 헤쳐 보면 굵은 나무들이 썩은 채로 깔려 있는 것이 그 증거라 한다. 전설적인 형태로 전승되고 있으나 천지창조신화적인 성격이 나타난다. 다만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까닭에 천지창조의 대상이 제주도 내의 산천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각편(3)의 노고할미는 육지에서 전승되는 거인설화의 주인공이다. 산천을 만들었다는 노고는 손이 크고 힘이 좋아서, 평평한 데 가서 줄을 쪽쪽 그어 산과 골을 만들었다고 한다. 각편(4)의 임의산은 천태산 마고할매가 창봉을 떼서 옆구리에 끼워 가지고 온 것이라 한다.

거인은 원래 산천을 창조한 신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창조의 대상은 산천과 같은 커다란 자연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성, 다리, 탑등과 같은 인공적인 건축물로 축소, 변화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각편(5)에서는 마고할매가 치마에 돌을 싸가지고 바다를 건너와서 폐왕성을 쌓았으며, 남은 돌 위에 방뇨한 것이 지금도 땅밑으로 흘러 개울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산천이 건축물로 축소, 변화하고 있는 단계가 드러나는 설화이다. 각편(6)에서는 거인이 육지에서부터 돌을 쳐서 운반하여 형도에 탑을 쌓았다고 한다. 각편(7)에서는 임경업장군이 회초리로 돌을 쳐서 운반하여 천마산에 성지를 만들었다고 한다. 부분적인 요소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인이 돌을 운반하여 어떤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것이 대강의 골격이다.

각편(8) (9) (10)은 천상의 공주가 지상에 떨어뜨린 반지때문에 파견된 천상의 장수가 반지를 찾기 위해 땅을 휘저었던 결과 오늘날과 같은 세상의 모양이 생겼다는 이야기이

다. 각편(8)과 (9)는 등장인물과 서사단락의 전개가 동일하다. 각편(10)에서는 먼저 파견되었으나 반지를 찾지 못해서 돌아오지 않는 시녀대신 다시 장수가 파견된다. 그러나 장수도 반지를 찾지 못하고 지상에 남아, 시녀와 부부가 되어 인류의 시조가 되었다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다. 각편(10)에서는 인세의 기원도 들어 있다. 세 각편 모두에 나타나는 것은 우주의 기원이다. 내용이 동화적인 점이 없지 않으나 전라도 산간지역에서 10월에 행하는 都神<sup>14)</sup>이 바로 이 설화에 나오는 인물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견해<sup>15)</sup>는 이 설화에 신화적 성격이 있음을 방증해 주는 한 자료가 된다.

떨어뜨린 반지를 찾다가 산천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각편(11)의 설화에서도 좀 더 축소된 형태로 발견된다. 각편(11)에서는 마을 뒤편에 있는 산의 모양이 움푹짐푹한 이유를 마고할미가 냇물을 건너다가 떨어뜨린 반지를 찾기 위해 이 주변을 마구 주물렀기 때문으로 이야기한다.<sup>16)</sup>

각편(12) (13) (14)는 배설의 결과 산천을 형성하고 홍수와 민족의 이동까지도 초래한 거인에 대한 이야기이다. 장길손 또는 장길산으로 불리우는 이 거인들은 너무나 큰 체구로 인해 옷이나 밥의 결핍상황에 처해 있다가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거나 결핍이 해소된 것을 기뻐하여 춤을 춘 것이 농사를 망치게 되어 사람들에게 축출을 당하게 된다. 축출당한 거인은 배고픔과 갈증을 참지 못하고 돌과 흙, 나무, 바닷물 등을 닥치는대로

14) 「도신」의식은 추수가 끝난 후 음식을 차려, 온 家神에게 추수의 감사를 고하는 추수감사의식이다.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북편) (1971), p. 90

15) 한상수(1980), 「한국인의 신화」, 문음사 p. 1987

16) 낙하산은 구름과 안개가 낮으막하게 깔려 있는 산의 모습이 안개가 내려와 있는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원래는 마구산이었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이 부분의 논지전개에 필요한 에피소드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각편(11)의 시바우유래는 원래 월평부락의 지형유래에 대한 몇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설화이다. 이에 의하면 월평부락의 지형 전체는 거인인 마귀할멈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는 바, 월평부락은 제주도 만큼이나 거인설화가 왕성하게 전승되었던 곳으로 보인다. 우주창조신화적인 성격을 띤 앞의 설화가 월평부락이라는 한 작은 마을과 그 주변 지형의 유래를 설명하는 지역전설로 전승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먹고 배탈을 일으켜서 엄청난 양의 배설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그 배설의 결과는 산천의 형성으로 나타난다.<sup>17)</sup>

…그가 토해놓은 것은 큰 산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백두산이라고 한다. 동서 양쪽으로 흘러간 눈물은 압록강과 두만강이 되었다고 하며, 설사를 하여 흘러 내려간 것이 태백산맥을 이루었고, 똥덩어리가 튀어 멀리 떨어져 나간 것이 제주도가 되었다고 한다.

한편 배속에 있는 것을 모두 토해놓은 장길손은 뒤를 돌아보며 「휴우-」하고 한숨을 내쉬는 것이 만주벌판이 되었다고 한다.<sup>18)</sup>

배설을 하고 정신을 차린 장길손은 자기를 후대한 남쪽사람들에게 거름이라도 해주겠다는 생각으로 백두산 위에서 오줌을 누는데 (13, 14) 이로 인해 홍수가 발생한다. 홍수로 북쪽에서 떠내려온 사람 가운데 살아 남은 사람이 한국인의 시조가 되고, 남쪽에서 떠내려온 사람은 일본인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홍수와 고대 민족의 이동 등이 소박한 형태로 반영되어 있다.

배설에 의한 산천형성은 장길손계설화가 대표적이지만, 그밖에 제주도의 설문대할망 설화나 육지의 마고할미, 노고할미설화와 같은 거인설화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각편 (15)에서는 설문대할망이 수수범벅을 만들어 먹고 똥을 싸 것이 농가물에 있는 궁상망오름이라는 산이 되었다고 한다. 각편 (13)에서는 소섬과 성산 사이의 바닷물과, 소섬의 유래를 거인배설과 관련시켜 이야기한다. 성산리 앞바다에 있는 소섬은 원래 성산에 붙어 있었는데, 설문대할망이 식산봉과 일출봉에 발을 딛고 오줌을 눌 때 오줌줄기의 힘으로 제주섬의 한 귀퉁이가 동강나서 소섬이 되었고, 성산과 소섬사이는 설문대할망의 오줌줄기때문에 깊이 패여 깊은 바다가 되었다고 한다. 각편 (17)은 재령강의 유래에

17) 이 설화에서는 거인의 체구가 계속 문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설화의 초점이 산천을 형성하게 되는 생산적인 배설행위에 두어져 있으므로 행위중심형 거인설화에 포함시켰다.

18) 각편 (13)

대한 이야기이다. 전승지역이 다른 데서 오는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며 각편(17)과 같은 내용의 설화라고 할 수 있다.<sup>19)</sup> 각편(18)도 (16) (17)등과 비슷한 것으로, 부북면 무전리라고 하는 한 마을의 지형을 거인의 배설과 관련시켜 이야기하고 있다. 마귀할마씨가 두 바위를 던지고 앉아 배설을 하자, 오줌으로 인해 산이 무너지고 동네가 생겼다고 한다. 이때 똥이 떨어져 내려간 곳은 굿다하여 굿질이라고 부르고, 마귀할마씨가 던졌던 두 바위는 그곳에서 배설을 했다고 하여 통시<sup>20)</sup>바위라고 한다고 한다.

각편(19)는 설문대할망이 한라산 위에서 오줌을 누려고 할 때 마침 포수에게 쫓기던 사슴들이 설문대할망의 큰 성기를 굴로 착각하고 들어오는 바람에 간지러워서 오줌을 누는 것이 내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앞의 설화들을 참고로 할 때 이 설화는 거인배설의 생산적 기능이 회피되거나 관심을 잃으면서, 전승의 관심이 거인의 성기쪽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배설의 생산적 성격이 회화화되고 있다.

#### 나. 대결형

채록되어 있는 거인설화의 자료는 정리되지 않고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무관심 속에서 거인설화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 나타나지 않는 시련이 없는 신화로 성격이 규정되는 경우도 있었다.<sup>21)</sup> 그러나 이는 거인설화의 자료를 한정시킨 데서 오는 단정적인 견해로서, 거인설화는 결코 시련이 없는 신화라 할 수 없으며, 다른 신화 못지 않게 많은 시련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거인설화의 시련은 행위중심형설화의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대결형설화에는 그 양상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19) 각편(16)의 설화는 제주도라는 전승지역의 특성에 따라 거인방뇨의 결과 섬과 바다가 생기고 있다. 이에 비해 각편(17)은 전승지역이 육지이므로 거인방뇨의 결과 강이 형성되고 있다.

20) 변소

21) 조동일(1980), p. 85에서 신화는 모두 문학으로 볼 수 있지만, 문학작품으로서 서사문학의 작품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은 시련이 있는 신화라고 했다.

고 있다. 대상자료는 다음과 같다.

- (1) 강원도 「향토의 전설」 203. 죽도의 마고할미들
- (2) 강원도 「향토의 전설」 203. 과부할머니
- (3) 영변군민회 「영변지」 78. 여장군 아차
- (4) 대계 1-5 355. 쌍부산. 쌍봉산이야기
- (5) 김한중 「함안지」 182. 갈마산
- (6) 김정호 「전남의 전설」 32. 삼산이수(三山二水)의 유래
- (7) 진도군지 편찬위원회 「진도군지」 466. 가다 선 지심쇠
- (8) 진도군지 편찬위원회 「진도군지」 466. 이음바위
- (9) 제주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제주도전설지」 68. 선문대할망(I)
- (10) 성균관대학교 국문학회 「성대문학」13집 57. 덕거리의 바위
- (11) 대계 7-17 384. 마고할미가 만든 바위
- (12) 대계 8-10 521. 호부래비 너더령의 유래
- (13) 대계 8-8 522. 단장면 경주산의 유래
- (14) 대계 8-8 565. 마을 인근산의 유래
- (15) 경주시 「신라전설집」 186. 물고 가던 바위
- (16) 밀양군 「밀양지」 351. 만어산 너덜경의 유래
- (17) 대계 8-8 651. 산내면 계곡의 바위들
- (18) 영덕군 「영덕군지」 503. 암석제당(선돌)
- (19) 대계 8-12 31. 상북면 독뢰산
- (20) 대계 8-13 451. 거리걸어온 독뢰산
- (21) 대계 8-12 456. 능골들에 돌이 쌓인 사연
- (22) 대계 6-9 684. 오늬힘내기
- (23) 홍순석, 이인영 「내고장 옛이야기」 돌무데기 전설(I)

- (24) 단양군 「내고장 전통가꾸기」 228. 온달과 입석
- (25) 장주근 「한국의 신화」 5. 설문대할망2
- (26) 장기근外역 「세계의 신화」IV 85. 수로왕의 근교와 허황후의 음석
- (27) 대계 8-2 33. 김수로와 허황후

각편(1)(2)에서는 上位神과 대결하지만 대개의 설화에서는 비슷한 위치에 있는 인물과 대결한다. 대결의 이유는 대개 주도권의 획득에 있다.

각편(1)은 상제의 권능에 도전한 마고할미에 관한 이야기이다. 마고할미는 원래 상제의 신하였지만, 인간세상의 통치권을 탐하고 상제의 권능의 원천인 둥근 돌을 훔쳐 지상으로 내려온다. 돌공으로 다른 돌을 갈아 구멍을 낼 때 권능을 얻게 되는데, 돌갈기는 매 번 상제의 방해에 부딪치게 되고, 한 번도 구멍을 내보지 못한 상태에서 돌공이 먼저 닳고 만다. 결국 마고할미는 상제와의 대결에서 패배하고, 지상의 통치권 획득에도 실패한다. 그러나 상제에 대한 마고할미의 도전에는 상제중심의 절대적인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가 엿보인다.

각편(2)는 늑도에 육교를 놓아주려 했으나 지리산 산신령의 도움이 없어 육교놓기를 중단하게 된 과부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이다. 과부할머니는 원래 지리산에 살았으나 늑도의 경치가 좋아 늑도로 옮겨 가서 살았다고 한다. 육교를 놓기 위해서 과부할머니는, 돌을 운반해도 찢어지지 않을 가죽치마를 하사해 줄 것을 지리산 산신령에게 부탁하지만, 산신령은 이것을 거절하며 과부할머니에게 지리산으로 돌아 오라고 한다. 그러나 과부할머니는 산신령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보통 치마로 돌을 날라 육교공사를 시작하다가 치마가 헤어지자 육교공사를 중단하게 된다. 육교놓기라는 위력공사의 이면에 과부할머니와 산신령 사이의 대립이 보인다. 산신령의 도움이 없어서 실패하게 된 육교공사에는 산신령에 대한 과부할머니의 열세가 나타나고 있다.

각편(3)(4)에는 천지창조의 주체가 되기 위한 대결이 나타난다. 각편(3)에서 거인과 대결하는 존재는 또 다른 거인이다. 천제에 의해 천지창조의 주체로 결정된 쪽은 남장

군이지만, 아차여장군은 남장군이 바빠서 약산을 미처 만들지 못했음을 알고 약산을 만들어서 치마폭에 싸가지고 간다. 이것은 남장군에 대한 도전이다. 그러나 이 도전은 남장군에 의해 이미 산이 완성되어 제자리에 놓여 있으므로 인해 패배로 돌아간다. 각편(4) 역시 산천이 형성, 이동되던 창세기를 배경으로 한, 두 거인의 대결에 대한 이야기이다. 산을 돌만한 적당한 위치를 찾지 못한 쌍봉산마귀가 잠시 쉬기 위해 산을 부려 놓은 곳은 남산 근처였다. 남산의 마귀는 쌍봉산이 남산보다 크고 좋은 것을 보고 쌍봉산을 쫓아내려 하지만, 실패하고 제2의 산으로 전략한다.

각편(5)부터 (8) 역시 산이동에 관한 이야기이다. 산신령, 巨神, 도사, 장사로 되어 있는 거인들은 산을 이동하던 도중 여자의 예기치 못한 등장으로 산이동에 실패한다. 산을 운반하던 거인들은 여자의 목격으로 인해 산이동을 저지당한다. 그래서 산은 가야 할 곳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다. 각편(7)의 장사는 들고 온 산에 이마를 부딪쳐 자살하기도 한다. 산이동에는 물론 천지창조라는 배경이 들어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볼 때 질서의 구축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설화는 질서의 구축에서 남자인 거인이 여자로 대표되는 세력에게 패배하여 질서의 구축에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sup>22)</sup>

각편(9)는 설문대할망이 제주도 開國神話의 주인공인 三姓과 대결한 이야기이다. 이 설화는 매우 단편적인 형태로 되어 있으므로 그 대결 양상이 간략한데, 미흡하나마 대결의 시작과 끝, 그리고 설문대할망의 성격은 드러나 있다. 이 설화에 의하면 설문대할망이 제주도에 들어온 것은 3성 탄생 이후로 되어 있다. 그는 제주도를 통치하려는 뜻을 품고 왔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각편(10)에서는 마고선녀로 대표되는 거인과 의상대사가 교세 장악을 위해 터다툼을

22) 강진옥(1980) “한국전설에 나타난 전승집단의 의식구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참고 pp. 94-108에 산이동설화의 유형론이 나와 있고, pp. 190-207에서 남·녀 갈등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별인다. 마고선녀는 道館을 짓기 위해 많은 바위들을 지고 봉황산 기슭에 올라 갔다. 그러나 그 터에는 이미 의상대사가 세운 부석사가 자리잡고 있었다. 그래서 마고선녀는 지고 온 바위들을 덕거리에 쏟아 버리고 갔고, 그 결과 부석면 덕거리의 밭에는 지금도 큰 바위가 많이 깔려 있다고 한다. 마고선녀는 원래 중국 도교의 신선<sup>23)</sup>이며, 의상대사는 신라 불교의 거두이다. 그렇다면 터싸움에서 마고선녀가 패배한 데에는 거인설화의 성격과 유사한 도교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24)</sup>

각편(11)도 대사와 마고할미가 등장하는 대결형이다. 그러나 이 설화는 회화화로 인해 대결 양상이 약화되어 흔적만 남아 있다. 특히 대사의 모습이 많이 회화화되어 있고, 마고할미는 오히려 앞의 각편들에 비해 훨씬 우월한 모습으로 되어 있다.

각편(12)의 호부래비 너더령은 한 할머니가 몽당치마에 담아 온 돌을 부어 버려서 생긴 것이라고 한다. 그가 돌을 운반한 이유나 그곳에 버리게 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비슷한 내용의 설화들을 참고로 이유를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는 치마에 싸온 돌로 뭔가를 만드려고 했지만, 치마가 몽당치마였던 까닭에 싸온 돌이 적었고, 따라서 뜻한 바를 성취하지 못하고 버리고 간 것이다. 할머니의 치마가 몽당치마였다는 것은 신체를 다 가리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그리고 돌을 많이 담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결핍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가죽치마가 없어서 보통치마로 돌을 운반하다가 육교공사를

---

23) 마고할미는 대개 천태산 마고할미로 많이 불리운다. 천태산은 중국의 산 이름인 바, 마고할미가 중국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마고할미가 우리나라에 인물이 나지 못하게 하려고 큰 돌을 들고 와서 혈을 질러 놓았다든가 대성산이 서울이 되지 못하게 하기위해 연못 하나를 덮어 놓았다는 등의 설화는 이와 관련하여 형성된 부정적인 이야기이다. 다음의 자료에도 마고할미는 중국 도교계의 신선이라고 되어 있다.

[麻姑]①古仙女. 建昌人. 修道於牟州 東南姑餘山. 東漢時, 仙人王方平, 降蔡經家, 召麻姑至, 年十八九, 貌美麗, 手爪似鳥. 謂方平曰…接待以來, 已見滄海三爲桑田., 向到蓬萊, 水又淺於往昔, 會時略半, 豈將復爲陵陸乎. 宋建和中, 封真人. 「辭海」(中華民國七十四年四月臺灣 中華書局)

24) 질서의 주체화에 실패한 거인설화의 성격과 불교전래 이후에 들어와서, 교세도 불교에 미치지 못하는 도교의 상황이 같다고 보았다.

중단한 과부할머니의 결핍 상황과도 같은 것으로서 자아의 의지를 좌절시키는 세계의 잠재된 장애이다.

각편(12)의 단장면 경주산은 멜방끈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한다. 각편(13)의 땅피산과 건지산 역시 마고할매 내외의 옷끈과 막대기가 풀리고, 부러지면서 각각 떨어졌다고 한다. 우연히 발생한 예기치 못한 장애로서, 적극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소극적인, 즉 잠재적 성격의 장애라고 할 수 있다.

각편(15)에서 (24)는 거인이 성쌓기에 쓰일 돌을 운반하던 도중, 성이 완성되므로써 운반하던 돌을 버리고 갔다는 내용이다. 성은 신라성(15)<sup>25)</sup>, 밀양성(19, 20), 언양성(21), 할미성(23), 온달성(24), 진시왕의 만리장성(16, 17, 18) 등으로 다양하다. 돌을 운반하는 사람은 안계동할미(15), 마고할미(16, 17, 19, 24) 등과 같이 대개~할미이다. 돌의 운반은 마치 짐승을 모는 것처럼 회초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치마에 싸서 운반하는 경우는 각편(19)과 (23)에서 나타날 뿐이다. 더구나 각편(23)에서는 돌의 운반이 많은 아낙네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거인위력이라는 요소가 약화되고 있는 양상으로 볼 수 있다.

돌을 한참 운반하던 도중에 할미는 성이 이미 완성되었다는 전갈, 또는 성이 완성되었으니 돌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기별을 받게 된다. 각편(20)의 마고할미는 울산의 축성공사에 동원된 밀양사람들을 돕기 위해 흙을 나르다가 잠시 쉬던 중 밀양장정들이 공사를 마치고 오는 것을 보게 된다. 각편(24)는 이 계열의 각편들과 약간 성격을 달리 한다. 마고할멈은 온달장군으로부터 온달성을 쌓을 석재를 산꼭대기까지 운반해 줄 것을 부탁받고 돌을 날라와 성을 쌓고 있다가, 성이 다 되어갈 즈음 온달장군이 신라군과의 싸움에 패배하여 성을 빠져 나갔다는 전갈을 듣게 된다.

돌의 운반이 무위로 돌아가게 되자 돌을 운반하던 할미는 돌을 그자리에 버리고 간

---

25) 괄호안의 숫자는 본고에서 정한 자료의 각편 번호이다. 이하 동일하다.

다. 각편(16)의 마고할미는 고기로 만들어 물고가던 돌들을 그 자리에 멈추게 하여 다시 돌로 환원시킨 뒤 버리고 간다. 버려진 돌들은 산이나 돌무데기로 남거나(19, 20, 23) 어느 지역의 벌판에 흩어져 있거나(15, 16, 17, 18,) 선돌(立石)로 남아 있다. (18, 24) 각편(15)에서 (24)의 설화에서 거인의 행위를 실패로 물고 가는 세계의 장애는 소외라고 할 수 있다.

#### 다. 사냥형

(1) 대계 9-2 710. 설문대할망

(2) 진성기 「제주민담」 85. 설문대할으방

(3) 김영돈外 「제주설화집성」(I) 705. 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

각편(1) (2) (3)은 거대한 성기로 물고기나 짐승을 잡은 거인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유형은 제주도의 설문대할망설화에서만 발견되는데, 성기를 이용하여 사냥하는 회화화된 이야기여서인지 남녀 거인이 부부로 등장하고 있으며 외설화되는 경향도 보인다. 설문대하르방은 이 유형 설화에만 나타나는 인물로서, 혼자 등장하는 각편은 없으며 설문대할망과 함께 나와 그 짝의 역할을 담당한다. 설문대하르방 중심으로 구연되는 설화라 할지라도 설문대하르방에 대한 소개는 설문대할망을 의식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sup>26)</sup>

따라서 설문대하르방이 등장하는 이 설화들은 설문대할망설화에서 변모된 것으로

26) “...설문대하르방이 있어났쥬(있었었거든)[김영돈 : 설문대하르방도 있어 마썰?]설문대할망이 이신디(있는데) 하르방이 웃입니까, 할망이 이시민 하르방이 잇쥬...” 각편(1)  
 “엔날 설문대 시절에 설문대할으방이 시엿쥬다(있었습니다.)” 각편(2)  
 “...성산면(城山面) 옛 것은 설문대할망때에 설문대할망만이(만큼) 혼 하르방(할아버지)도 잇었던 모양이라마썰(있었던 모양입니다)[조사자 : 예]설문대할망 시절에는 큰 할망이 이시니까 하르방도 잇어사(있어야) 혼접주게(할게지요)...” 각편(3)

볼 수 있다.

거인부부는 하르방은 물이꾼이 되고 할망은 포망이 되어 물고기와 산짐승들을 사냥한다. 장길손이 자신의 밥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얻어 먹는 것과 달리, 설문대부부는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차이를 보인다.

이제까지 본 연구에서는 거인설화의 존재양상을 이해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거인설화의 자료를 외모중심형과 행위중심형으로 대별한 뒤, 행위의 종류에 따라 행위중심형설화를 세 하위유형으로 다시 구별해 보았다. 그 결과 거인설화의 자료 양상과 신화적 성격이 좀 더 구체화되는 성과를 얻은 것으로 생각된다.

거인설화의 신화적 성격은 산천형성형과 같이 신화적 성격이 매우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거인설화를 대상으로 하여 한정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원형에서 벗어난 변이형의 경우라도 그것이 거인설화의 범주에 해당한다면, 동일한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거인설화 내의 하위유형들간의 관계 또한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외모중심형 거인설화는 거인의 외모 묘사에 관심이 있는 설화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거인의 행위도 그 자체로 독립적인 의미를 지니지 못하며, 거인의 외모를 묘사하기 위한 수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외모중심형 거인설화는 행위중심형에 비해 서사성이 약하고 단순설명담의 형태로 되어 있다. 외모중심형 거인설화의 이와 같은 성격은 서사적 성격을 중시하는 설화 연구의 경향에서는 서사성의 약화 정도로 이해하고,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기 쉽다. 그러나 거인에 대한 외모의 묘사는 거인이 산천을 형성했다는 창조행위의 묘사와 상통하는 성격의 것이다. 즉, 거인의 외모인 거대한 체구는 내면적인 힘의 현현이라는 점에서 비범성 또는 신성성의 징표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교술무가<sup>27)</sup>의 ‘讚神’과 상통한다.

행위중심형 거인설화는 거인의 행위에 따라 산천형성형, 대결형, 사냥형의 세 가지 하위유형으로 구별했다. 산천형성형은 거인설화의 신화적 성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설화이다. 창조의 대상이 산천으로 축소되어 있지만, 우리 민족의 천지창조신화라고 할 수 있다. 대결형은 천지를 창조하는 위업을 달성했지만, 다른 신화적 존재와의 다툼에서 패배하고 주도권 획득에 실패한 거인의 이야기이다. 오늘날 거인설화가 신성성을 상실하고 구전설화에만 그 잔영을 남기고 있는 전승양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결의 방법 가운데 빈도높게 나타나고 있는 성쌍기나 다리놓기 등의 토목공사는 산천형성의 축소, 변화 형태로서, 역시 거인설화의 천지창조신화적 성격을 보여준다. 남, 녀 거인이 성기로 짐승을 잡아 밥문제를 해결하는 사냥형은 앞의 유형들에 비해 신화적 성격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편이다.

이상으로 거인설화의 신화적 성격을 살펴 보았다. 제 유형에서 거인설화는 점차 신화적 성격을 상실하고 전설, 민담적인 형태로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B. 구조와 의미

앞절에서는 거인설화의 자료 개관을 통해서 거인설화의 전승양상 및 신화적 성격에 대해 알아 보았다. 여기에서는 설명적형태로 된 외모중심형설화의 경우 구조의 발견이 어려우므로, 대상을 행위중심형설화에 한정하여 하위유형별로 구조와 의미를 살펴 보기로 한다. 그런데 행위중심형의 각 유형들은 한 유형의 설화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27) 서사무가와 회곡무가를 제외한 단편적인 무가는 대부분이 교술무가에 속한다. 단편적인 무가는 신통의 나열이나 의례를 행하기까지의 설명, 또는 인간의 소원을 신에게 아뢰고 신의 의사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것이 주가 되어 있다. 따라서 사물의 묘사를 설명하고 알려주는 것이 중심이 되며, 이것은 모두 교술의 성격에 부합하는 것이다. 장덕순外3인(1971)「구비문화개설」, 일조각 p. 119 p. 123

여러 유형의 설화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런 경우 한 유형의 설화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여러가지 구조가 나타나게 된다.

## 1. 산천형성형

이 유형에는 세 가지의 설화가 나타난다. 첫째는 산천의 형성이 다른 사건의 부가없이, 1회적인 인과관계로 되어 있는 설화이다. 둘째와 셋째는 다른 사건의 전개 끝에 산천의 형성이 부대적으로 나타나는 설화들이다. 둘째 설화는 천상장수가 반지 찾다가 세상의 모양을 만든 이야기이며, 셋째 설화는 장길손의 배설로 산천이 형성된 이야기이다. 순서대로 각 설화의 서사단락을 추상화하면 다음과 같다.

### (1) ㄱ. 거인위력(거인배설)

#### ㄴ. 산천형성

### (2) ㄱ. 천상공주의 반지분실

#### ㄴ. 천상장수의 반지탐색

#### ㄷ. 천상장수의 반지발견, 산천형성

### (3) ㄱ. 장길손의 衣(食)결핍

#### ㄴ. (방황)

#### ㄷ. 衣(食)결핍의 해소

#### ㄹ. 농사의 방해로 축출당함

#### ㅁ. 食결핍

#### ㅂ. 해소의 시도

ㅅ. 배탈

ㅇ. 배설, 산천형성

단락소에 따라 세 설화의 구조를 정리하면 (1)은 힘의 발휘-성취 (2)는 고난-해결의 시도-해결, 의외의 성취 (3)은 고난-해결의 시도-해결-고난-고난의 심화-해결의 시도-좌절-해결, 의외의 성취로 드러난다.

## 2. 대결형

거인과 다른 신화적 존재가 대결하는 이 유형의 서사단락을 추상화하면 다음과 같다.

ㄱ. 거인의 주도권 결핍

ㄴ. 도전

ㄷ. 패배

단락소에 따라 구조를 정리하면 고난-해결의 시도-좌절로 나타난다.

## 3. 사냥형

남녀거인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성기로 짐승을 잡는 이 유형의 서사단락을 추상화하면 다음과 같다.

ㄱ. 食(배우자) 결핍

ㄴ. (남녀거인의 결연)

ㄷ. 사냥

ㄹ. 食결핍의 해소

이것을 단락소에 따라 정리하면 고난－(부분 해결)－해결의 시도－해결의 구조로 되어 있다.

구조는 의미의 형상화인 바, 이상에서 파악된 구조에는 거인설화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구조로 구현된 거인설화의 의미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산천형성에서 (1)은 힘의 발휘와 성취의 1회적 구조로서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야기이다. (1)에는 세계와의 대결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와 자아의 동질적 인식이 대결없이 확립되고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을 거인설화의 파편적인 전승형태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원래는 대결이나 시련이 있었지만, 전승 과정에서 탈락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1)의 구조의 의미는 오히려 그보다는 거인의 원초적 성격이 창세신이었다는 데서 찾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창세신은 최초의 신으로서 절대적인 성격을 지니는 바, 그의 행위 역시 불가능이 없다.

(2)와 (3)의 구조는 (1)보다 더 복잡하다. 그러나 산천형성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진 (1)보다 더 약한 편이다. 산천형성형설화라고 하지만 고난에서 해결까지의 구조는 산천형성에 대한 것이 아니며, 반지, 옷, 식량과 같은 거인의 결핍상황과 그 해소에 대한 것이다. 산천의 형성은 위의 결핍상황의 해소 끝에 얻어진 부대적인 것일 뿐이다. 이것은 창세신으로서의 거인의 면모와 산천형성으로 대표되는 천지창조라는 사건에 대한 관심의 약화에서 비롯되는 구조로 보인다. 즉 고난과 해결의 구조는 절대성을 상실한 거인의 모습의 반영인 동시에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

기도 하다. 천지창조는 그것이 일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집단의 문제라는 점<sup>28)</sup>에서 그다지 흥미로운 것이 아닌 반면, 재물의 탐색과 배고픔의 해소 같은 것은 일회에 해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며 집단 아닌 개인의 문제라는 점에서 설화항유층의 관심을 끄는 것이다. 따라서 (2)와 (3)의 설화의 구조는 흥미있는 요소는 커지고 흥미를 상실한 쪽은 작아지는, 관심 영역의 변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인의 고난에서 시작하여 좌절로 끝나는 대결형의 구조는 거인신앙의 퇴조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도권의 결핍으로 나타나는 고난은 대결 이전에 이미 절대적인 성격을 상실한 거인의 모습이다. 해결의 시도에서 패배함은 거듭되는 좌절로서, 더 힘센 존재라는 세계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마는 거인의 한계이다.

고난이 해결되는 사냥형의 구조적 의미는 세계의 장애를 극복한 거인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거인설화의 하위유형에 나타나는 구조와 의미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거인설화의 의미는 구조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산천형성형의(1)을 제외한 거인설화의 모든 구조가 ‘결핍’으로 대표되는 ‘고난’에서 시작하여, 좌절이나 해결의 구조로 전승되고 있는 데서 거인설화의 성격을 시사받을 수 있었다. 즉, 거인설화는 원래 산천형성형의 (1)과 같은 천지창조신화였으나, 창세신의 절대적 신성성을 상실하고 파편신화적인 전설과 민담의 형태로 변화, 전승되어왔음을 그 구조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 C. 거인설화의 모티프

거인설화의 존재양상은 앞의 두 절에서의 고찰로 규명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본절에서 거인설화의 모티프를 거론하는 것은 다음 장의 논의를 위한 예비적인 성격을 띤다.

---

28) 한번의 창조로 천지는 계속 존재하고 있으며, 천지창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일이라는 것

설화의 전승은 구조, 모티프, 인물 등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거인설화의 경우 주된 전승소는 모티프이다.

모티프는 이야기를 이루는 독립된 요소들이며, 한 유형에는 하나 이상의 모티프가 들어 있다.<sup>29)</sup> 따라서 네 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던 거인설화<sup>30)</sup>에는 최소한 네 개 이상의 모티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거인설화에는 ‘大衣’, ‘大食’, ‘排泄’, ‘힘내기’, ‘性器로 사냥하기’, ‘性器로 다리놓기’등의 다양한 모티프가 나타나고 있다.

대의모티프는 체구가 커서 옷도 못입고 지내는 거인에게 옷을 만들어주려는 시도가 역시 거인의 거대한 체구로 인해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 모티프는 외모중심형 거인설화의 각편(6)과 (12) 그리고 행위중심형 거인설화인 산천형성형의 각편(12)에 들어 있다.

대식모티프와 배설모티프는 산천형성형과 사냥형 거인설화에서 나타난다. 두 모티프가 한 설화 내에서 종종 같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양자간의 인과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식과 배설의 주체는 거인이다. 거인의 대식은 음식의 결핍과 거인의 굶주림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sup>31)</sup> 거인이 돌과 나무 등 못 먹을 것을 먹고 배탈이 난 경우에는 배설물이 다양하지만, 대개의 배설은 대변과 소변이다. 대식은 거인을 고난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고, 배설의 결과는 산천의 형성이나 짐승의 사냥으로 이어지고 있다.

29) 장덕순外(1971), p. 52

30) 거인설화가 II 장의 A절에서 하나의 외모중심형설화와 세 개의 행위중심형 설화로 분류되었던 것을 뜻한다.

31) “...그는 몸집이 커서 먹을 것을 많이 먹어야 했다. 그는 한번에 쌀을 수십 섬씩 먹어야 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배가 고팠다...”, 한상수(1980), “장길손”, p. 188

“...선문대할망은 먹는 것도 여간 많이 먹지 않았다. 그는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 앞책 “선문대할망”, p. 192

힘내기모티프는 대결형 거인설화의 핵심적인 모티프이다. 힘내기의 주체는 상제와 마고할미, 지리산 산신령과 과부할머니 등에서 시작하여 남장군과 여장군, 여자와 산신령, 거신, 도사, 장수, 三姓과 설문대할망, 의상대사와 마고선녀, 불특정 다수와 마고할미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다.

힘내기의 형태도 산만들기, 산이동, 돌공으로 바위에 구멍내기, 道館짓기, 성쌓기 등으로 다양하다.

✧ 힘내기의 결과는 ○○할미로 표현되는 여성, 또는 산이나 돌 등을 운반하고 있던 쪽의 패배로 되어 있다.

앞에서는 사냥형 거인설화에 배설모티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유형의 중심 모티프는 배설보다는 성기사냥모티프이다. 이 모티프에서는 설문대부부가 주체로 등장하여, 하르방이 성기로 몬 짐승들을 할망이 자신의 하문에 잡아 들이므로써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

거인의 거대한 성기는 이외에도 김수로왕과 허황후를 주체로 한 설화에서 모티프로 등장하고 있다. 거인 남녀는 ‘성기로 다리를 놓기’도 하고, ‘자리로 깔아주기’도 한다. 또는 根橋를 건너가던 사람들이 물에 떨어지자 허황후가 자신의 하문으로 건져 내어 살리는 경우도 있다.

이상의 여러 모티프들은 모두 행위자가 거인임을 전제할 때 발행할 수 있는 상황과 행위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거인설화의 모티프들은 거인이라는 특이한 인물형을 기본으로 하여 파생, 발전된 모티프로 생각된다.

이 가운데 대의, 성기로 사냥하기, 성기로 다리놓기(성기로 자리깔기)모티프를 제외한 힘내기, 대식, 배설의 세 모티프는 소멸되지 않고 일군의 장수설화에서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모티프에 의한 거인설화의 계승으로 보고, 다음 장에서는 거인설화의 모티프를 계승하고 있는 일군의 장수설화들을 “거인형 설화”라는 범주에 넣어 거인설화와의 연계하에 살펴 보기로 하겠다.

### Ⅲ. 거인형설화의 존재양상

앞장에서는 거인설화의 존재양상 및 신화적 성격에 대해 고찰했다. 거인설화가 신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인데,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거인설화가 다음의 두 방향으로 전승되었다고 보았다. 첫째, 거인설화는 파편신화적인 전설과 민담으로 장르변이를 일으켰으며 둘째, 거인설화의 특이한 모티프가 소멸되지 않고 다른 설화에 계승되므로써 거인형설화군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첫번째 전승방향에 대해서는 “거인설화”로 살펴 보았고, 본장에서는 “거인형설화”에 나타나는 거인설화의 두번째 전승양상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겠다.

거인형설화는 거인설화의 모티프를 계승하고 있는 일군의 장수설화를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 거인형설화에 포함시킨 일군의 장수설화는 “오늬힘내기”, “제주도 장수할망”, “방귀쟁이들의 방귀시합”, “제주도 밥장수”, “호랑이 잡은 밥장수”, “방귀쟁이 며느리”의 여섯 가지 구전설화이다.

본장에서는 거인형설화의 전반적인 성격과 변이를 살펴 본 뒤, 거인설화의 계승과 변모라는 관점에서 거인형설화의 중심인 각 모티프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 A. 자료의 성격과 변이

##### 1. 오늬힘내기 설화

오늬힘내기 설화는 힘이 장사인 두 남매가 힘내기를 하는데, 누이가 힘이 셋음에도 불구하고 어미의 부당한 개입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거인설화와의 관계하에 이 유형 설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적은 없지만, 이 유

형 설화가 거인설화와 무관하지 않음은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직접, 간접적으로 시사되어 왔다. 33)

이 유형의 설화는 그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깊이있게 연구되어 왔으므로<sup>34)</sup> 본 연구에서는 이 유형을 본격적인 유형론으로는 다루지 않고, 다만 본 연구의 전개에 있어 필요한 부분만을 기존논의의 성과에 의존하기로 한다.

이 유형의 대표적인 설화를 서사단락화하면 다음과 같다.

- ★
- ㄱ. 어느 곳에 ○○성이 있다.
  - ㄴ. 옛날 이 곳에 흠어미가 남매를 데리고 살았는데 남매가 모두 力士여서 둘 중 하나를 없애야 했다.
  - ㄷ. 아들은 굽나막신 신고 한양 다녀오기, 딸은 ○○산 위에다 성쌓기 내기를 시켰다.

33) 오뉘힘내기설화에 거인설화의 잔영이 나타난다는 것은 조동일이 지적하고 천혜숙도 동의한 바 있다.

‘오뉘힘내기’라면 그 핵심은 남자와 여자가 싸워 여자가 패배했다는 데 있고, 싸움하는 쌍방이나 싸움의 양상이 고대 거인신화의 면모를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기에 특별히 주목된다.” 조동일(1981), “한국설화의 변이양상에 대한 논평과 의견”, 『한국학연구의 성과와 그 성찰』(한국정신문화원)

천혜숙(1987) “전설의 신화적 성격” 계명대박사논문(미간행) p. 81도 오뉘힘내기형은 다툼의 과정에 그 의미가 집중되어 있으며, 두 장사가 공존할 수 없는 상황성이 더 강하게 부각된다고 하면서 이 유형을 고대 거인신화의 잔영으로 보는 관점은 그런 점에서 타당하다고 했다.

34) 최래옥(1981),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일조각, pp. 50~58, pp. 178~195, pp. 310~321

현길언(1980), “힘내기형 전설의 구조와 그 의미”, 『연암 현평효박사 회갑기념논총』

장덕순(1986), 「한국문학의 연원과 현장」, 집문당

천혜숙(1987), 위의 글 pp. 81~111

- ㄹ. 아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는데 팔이 성쌍기를 끝내가자 아들을 이기게 할 욕심으로 어미는 팔죽을 쭈어 딸에게 먹였다.
- ㅁ. 딸이 팔죽을 먹는 사이에 아들이 왔으므로 딸은 죽음을 당했다.
- ㅂ. 지금도 딸이 쌓다 만 성이 남아 있다.<sup>35)</sup>

## 2. 제주도 장수할망 설화<sup>36)</sup>

이 유형은 제주도에서만 발견되고 있으므로 특별히 제주도 장수할망 설화라고 칭했다. 수집된 설화는 총 3편으로 많지 않은 양이지만 거인형설화를 논하는 데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한 유형으로 다루었다. 제주도의 여장사 설화 역시 강진옥, 천혜숙에 의해 제주도 거인설화인 설문대설화와 같은 유형으로 다루어진 적이 있다.<sup>37)</sup>

이 유형의 설화를 서사단락화하면 다음과 같다.

- ㄱ. 한 힘센 할망이 어느 동네에 시집을 왔다. 그가 다니는 길에는 들음돌이 놓여 있어 귀찮았다.
- ㄴ. 할망은 들음돌을 들어 다른 곳에 옮겨 놓았다.

35) 천혜숙(1987), 앞 글, p. 82

36) 현용준(1976), 「제주도 전설」, 서문당, p. 206 “심돌 강씨할망”

p. 204. “문만호며느리”

p. 210. “태흥리 경김댁며느리”

37) 강진옥(1980), “한국전설에 나타난 전승집단의 의식구조연구” 이화여대학원석사학위청구논문(미간행) pp. 110~116에서는 한국전설에 나타난 남녀갈등의 근거를 얻기위한 한 자료로써 설문대와 제주도의 여성장수설화를 설문대형으로 묶어 함께 제시하고 있다. 또, 천혜숙(1987) p. 82에서도 설문대할망과 제주도 여장수들을 한 데 묶어 ‘설문대할망’類로 지칭하고 있다.

- (  
 ㄷ. 마을 청년들은 모두 힘을 합해도 그 돌을 옮길 수가 없었다.  
 ㄹ. 할망은 들음돌을 제자리로 옮겨 주었다.

힘센 할망은 다른 동네에서 시집온 며느리이다. 따라서 그가 힘이 세다는 것을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한다. '들음돌'이란 둥그렇고 큰 바윗돌로서, 지난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길거리에 늘 놓아 두어 젊은이들이 힘내기로 들어 힘을 기르던 돌이다. 이 돌은 큰 것을 놓아 두면 반드시 그것을 들 수 있는 힘센 사람이 난다하고, 그것은 동네의 힘의 과시도 되어서 큰 들음돌이 놓여 있으면 딴 동네사람이 감히 넘보지를 못했다고 한다.<sup>38)</sup> 할망은 물을 길러 가던 길에 발이 채여서, 또는 물길러 갈 때마다 힘내기를 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는 것이 귀찮아서 들음돌을 들어 다른 곳으로 던져 버리기도 하고, 얼마나 무겁길래 그렇게 힘들어 하나 하고 시험삼아 들어본다. 할망은 물허벅을 진 상태에서 돌을 가볍게 들어올려 던져버린다.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이다. 다음날 청년들은 돌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래 자리로 옮겨 놓으려고 힘을 합하였으나 들 수가 없었다. 이에 할망은 그 돌을 원래대로 옮겨주는데, 이 부분에서 할망의 성격은 각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sup>39)</sup> 심돌 강씨 할망은 자신의 힘을 발휘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그러나 문만호의 며느리는 자신의 힘을 시험해 보고 싶어서 아무도 없는 새벽에 들음돌을 들어 보았다가 그로 인해 시아버지에게 회초리를 맞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듣는다. 경김덕 며느리는 청년들이 돌을 옮겨달라고 사정하자 젊은이들을 보내 놓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밤을 이용해서 돌을 옮겼다고 한다. 문만호며느리가 타인에 의해 힘을 못 쓰게 된 것과 달리 스스로 자신의 힘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

38) 현용준(1976), p. 204

39) 강진옥(1980), pp. 113~116 참고

### 3. 방귀쟁이들의 방귀시합<sup>40)</sup>

방귀뀌기의 주인공은 며느리나 여자로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대개 남·녀로 되어 있다. 내기는 두 사람이 다 방귀쟁이이므로 누가 더 방귀의 위력이 센지를 가르는 방귀의 위력경합이다.

이 유형을 서사단락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ㄱ. 옛날에 A라는 방귀쟁이와 B라는 방귀쟁이가 살고 있었다.
- ㄴ. 방귀쟁이 B가 방귀시합을 하기 위해 A에게 찾아 갔다.
- ㄷ. A는 없고 A의 아이가 혼자 집을 보고 있었다.
- ㄹ. B는 아이를 굴뚝앞에 세워두고 방귀를 뀌어 아이를 까맣게 만들어 놓고 돌아

---

40) (1) 대계 6-10 501. 방귀시합

(2) 대계 6-7 37. 옷넉 방구장과 아랫넉 방구장이

(3) 대계 6-1 24. 방귀시합

(4) 대계 1-4 99. 방귀시합

(5) 최래옥「전북민담」 125. 남녀방귀시합

(6) 대계 8-2 32. 방아섬 유래

(7) 대계 2-8 545. 중과 과부의 방귀내기

(8) 대계 7-8 85. 방귀쟁이의 대결담

(9) 임동권「한국의 민담」 67. 방귀시합

(11) 대계 6-4 288. 방귀쟁이의 시합

(12) 손진태, 「조선민담집」 236. 방비(放屁)시합

(13)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평안북도편Ⅱ 203. 방귀경합

(14) 대계 6-3 31. 방귀시합

(15) 대계 5-7 522. 방귀싸움

갔다.

- ㄹ. A가 돌아와, 이 사실을 알고 B가 가는 쪽을 향해 방아공이를 날려 보냈다.
- ㅂ. 방아공이만 왔다갔다하며 승부가 나지 않았다.

각 단락별로 이 유형의 변이양상을 살펴 보겠다.

ㄱ. A와 B의 두 방귀쟁이는 중과 과부, 웃넝 홀엄씨와 아랫넝 홀애비, 서울남자와 아래더미 김씨, 서울과 시골, 경상도와 전라도의 남자들과 같이 대립적인 속성을 지닌 인물들로 형상화되어 있다.

ㄴ. 이 중에 어느 한 방귀쟁이가 다른 방귀쟁이를 찾아 간다. 이는 대개 누가 방귀를 잘 뀌는다는 소문에 따라 방귀의 힘을 겨뤄 보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제일가는 방귀쟁이가 되기 위해 승부를 가리러 오는 경우도 있다.

...어느날 전라도 방귀장이는 이왕이면 팔도에서 제일가는 방귀장이가 되려고 경상도까지 원정시합을 나섰다. ... 41)

옛날에 천하에 방구 잘 꾸는 남자가 하나 살았는데, 제가 천하제일이라고 자신만만했는데, 하루는 듣자니까 어디가면 여자 방귀쟁이가 날고긴다는 말을 듣고 한번은 시합을 해 보려고 찾아 갔다... 42)

각편(14)의 방귀쟁이는 서울에서는 이름이 났지만 시합을 해보고 싶어도 함께 겨룰 사람이 없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며 상대를 찾는다.

ㄷ. 그러나 방귀쟁이 A의 집에는 정작 A는 없고 그의 아이만이 집을 보고 있으므로 방귀시합을 못하게 된다. 각편(9)에서는 방귀쟁이 여자의 시어머니가 혼자 집을 보고 있다.

---

41) 각편(10)

42) 각편(5)

ㄷ. 그래서 B는 A와 시합을 못하고 가는 대신 A의 아이에게 자기의 방귀 위력을 보여주고 간다.

...그래 인자 여자는 만나볼라카이 만나볼 수도 없제 그냥 갈라카이 안되겠어, 그래 아아를 굴뚝에다 시와놓고 방구를 ‘뽕’긴게 부석으로 확 나오고(일동;웃음)부숙에다 시와다 놓고 ‘뽕’긴게(청중:웃음)굴뚝으로 싹 나가 버리거덩(웃으면서)그래 아아가 굴뚝취걸애여

그래가이고(청중;봤는가?) (일동;웃음)그래, 그래, 그 저 그래놓고는 이까지 와가주고 멀리 와가주고 말이지, 뿐대를 한 분 보이고 간다고, 그냥 갈 수는 없고 하이께네 인제 전본으로 그 랐단 말이라(웃음을 참지 못한다)... 43)

각편(10)(12)(13)(14)(15)에는 단락ㄷ이 없다. 따라서 이들 각편의 단락ㄷ은 이와 관련한 변이로 보인다. 각편(10)은 주인이 없자 연습삼아 방귀로 집을 날려 보낸다. 각편(13)은 왔다간 표를 해 둘 요량으로 가만히 방귀를 끼어 집을 절반으로 끊어 놓는다. 각편(14)와 (15)는 단락ㄱ부터 ㄷ까지의 내용이 생략된 상태이다.

ㄴ. 집에 돌아와서 까맣게 된 아이에게서 이야기를 전해듣고 화가 난 방귀쟁이 A는 B가 가는 쪽을 향해 절구공이를 날린다. 절구공이는 때로 돌절구통이나 홍두깨이기도 하다. 각편(9)에서는 여자가 집에 없어 그냥 갔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들어와 그 말을 들은 여자가 방귀로 절구공이를 날리므로써 시합이 개시된다. 며느리의 절구공이는 중의 불기작을 치고 중도 며느리의 불기작을 친다. 따라서 단락ㄴ이하의 내용을 참고하면 각편(9)의 단락ㄷ이 변이되었음을 알 수 있다.

ㄹ. 방귀시합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다. 방귀시합의 결과가 승·패를 넘어서서 생·사의 문제로까지 나타나는 경우(5·7)도 있지만, 대체로 단락ㄹ은 방귀쟁이들이 날려보낸 방아공이 쪽으로 관심이 전도되어 있고, 승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향이다. 방아공이는 왔다갔다 하다가 썩었다고도 하고 그 바람에 벼단의 벼가 다 떨어졌다고도 하며,

43) 각편(8)

거기서 지금의 비행기가 나왔다고도 한다. 또는 이런 식의 회화화외에도 방아공이가 떨어져 몽승어가 되었다고도 하고 (11) 양쪽에서 날려보낸 말안장과 방아공이가 마주쳐서 송어와 가오리가 되었다고 하는 각편도 있다. (13) 각편(6)에서 방아공이는 두 동강이 나서 한 개는 언문계 안에 있는 방아섬이 되고 한 개는 통영 들어가는 곳의 방아섬이 되었다고 한다. 각편(15)의 경우 왔다갔다하던 절구통이 남의 집 장독대에 떨어져 장항아리를 깬다.<sup>44)</sup>

각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보이는데, 이것은 두 방귀쟁이의 방귀위력이 똑같았기 때문에 생긴 상황이다. 이 경우는 무승부라고 할 수 있겠다. 각편(9)와 (10)에는 시합의 결과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다. 각편(9)의 두 방귀쟁이는 방아공이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하고 승부가 나지 않아 그냥 헤어졌다고 하며, 각편(10)에서는 두 사람 모두 팔도의 방귀대장이 되었다고 한다. 각편(14)에서는 왔다갔다하던 방아공이가 여자의 성기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하여 외설화되어 있다.

#### 4. 제주도 밥장수 설화<sup>45)</sup>

---

44) 각편(5)

45) (1) 김영돈外「제주설화집성(Ⅰ)」 887. 막산이(Ⅰ)

(2) 김영돈外「제주설화집성(Ⅰ)」 928. 막산이(Ⅱ)

(3) 현용준「제주도전설」 195. 막산이

(4) 제주도문화공보담당관실, 「제주도전설지」 349. 막산이(Ⅰ)

(5) 제주도문화공보담당관실, 「제주도전설지」 353. 막산이(Ⅱ)

(6) 현용준「제주도전설」 200. 논하니.

(7) 제주도문화공보담당관실 「제주도전설지」 270. 논하니

(8) 김영돈外「제주설화집성(Ⅰ)」 518. 최동이장사(Ⅰ)

(9) 김영돈外「제주설화집성(Ⅰ)」 985. 최동이장사(Ⅱ)

제주도 밥장수 설화는 체구가 크고 힘도 장사였으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밥을 먹어야 했던 까닭에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체구가 크면 밥을 많이 먹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들은 말밥, 섬밥에 牛馬 한 마리를 먹어야 겨우 배가 차는 사람들이다. 장수는 장수이되, 밥장수이다. 이 유형의 설화는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제주도에서 집중적으로 채록되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 유형을 “제주도 밥장수 설화”라고 칭했다.<sup>46)</sup>

본고에서는 이 유형 설화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거인’의 성격에 보다 가까운 ‘막산이 제열’의 설화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제주도의 밥장사들은 양반이나 평민층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개는 종의 신분이었던 것으로 되어있다. 종의 신분이었던 밥장사에는 막산이, 논하니, 새샘이, 최동이, 정운디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자료가 수집된 것은 막산이 설화이다. 에피소드식으로 구연된 밥장수 설화들을 비교해 보면 정운디설화를 제외한 논하니, 새샘이, 최동이설화들은 인물의 성격과 행위에 있어서 막산이와 비슷하다. 정운디도 일부 동일하기는 하나, 네 밥장수들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sup>47)</sup> 정운디를 제외한 네 밥장수에 관한 설화를 막산이계 설화로 칭했다. 막산이설화 가운데 가장 내용이 풍부한 설화를 대표로 하여 서사단락화하면 다음과 같다.

46) 제주도 밥장수설화는 현길언에 의해 제주도의 여러 장수설화 중의 하나로 다루어진 바 있다. 그는 종신분의 밥장수설화와 종 아닌 밥장수설화에 제주사람들의 좌절과 저항의 삶의 양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현길언(1981), 「제주도의 장수설화」, 홍성사

47) 정운디는 종의 신분이면서 힘이 장사인데 官과 결탁하여 제주도 밥장사들을 제거하는 인물이다. 정운디는 같은 종의 신분이었으나 역시 힘도 장사였지만 그의 생애는 정반대였던 것으로 되어있다. 이 것은 그가 막산이계의 밥장수들과는 정반대의 위치인 관의 입장에 있었던 데서 기인한다. 그는 막산이, 새샘이, 오찬이 등의 밥장수들을 관의 손에 넘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라산에서 만난 70여 명의 도둑들을 모두 잡았다고 한다. 이들을 관에 넘겨 줌으로써 정운디는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 ㄱ. 옛날에 의귀 김택에 ‘막산이’라는 힘세고 배 큰 종이 있었다.
- ㄴ. 김택에서는 막산이를 먹이기가 힘들어지자 배염바리 강택에 팔았다.
- ㄷ. 막산이는 부르기로 한 일꾼을 전혀 부르지 않고 혼자서 쉰 명분의 점심을 먹은 뒤 스무섬 지기의 논을 만들었다.
- ㄹ. 배염바리 강택에서도 먹일 수가 없어 막산이를 쫓아냈다.
- ㅁ. 막산이는 도둑들이 모여사는 곳에 가서 영웅대접을 받으며 살았다.
- ㅂ. 배염바리 강택하르방이 막산이를 숙여 목사에게 넘겼는데, 그것이 막산이의 최후이다. <sup>48)</sup>

ㄱ. 제주도 밥장수 설화는 전설의 형태로 전승되어 오는 까닭에 인물의 행적이 매우 사실적으로 나타나 있다. 막산이 등은 3백 년 전 경에 중문면 중문리 무우남발 이좌수 네집 종이였다고 하는데, 여러 자료를 전주어 보면 의귀리 김택의 종이였다는 것이 많다. 의귀리 김택의 종이 되기 전에는 서울 어느 집의 종이였으며 배가 커서 쫓아내려던 것을 김택 어른이 서울에 과거보러 갔다가 데려왔다고도 한다. (2, 7) 막산이는 힘도 세고 일도 잘 했으나 배가 너무 크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는 서 말밥을 먹어도 배가 차지 않았다. (5) 항상 배가 고프니 막산이는 밤마다 동네에서 도둑질을 해서 주린 배를 채운다. 제삿날이라 주인이 잠을 안자고 지키는 데도 도둑질을 한다. (3) 그는 식량을 알아보고자 주인이 만들어 준 오메기떡 서 말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눈 깜짝할 새에 다 먹어버린다.

의귀리 김택에서는 대식가인 종을 먹이기가 힘들어지자 배염바리 강택으로 판다.

ㄴ. 강씨집에서는 막산이의 식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새 종을 데려온 김에 논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많은 일꾼을 구해오게 한다. 일의 종류는 꼴 베어 묶기(2, 5, 7, 8,) 벼 베기(7), 1정보 크기의 조밭엮기(3,) 집지을 나무베오기, 남방아만들기(9, 10) 등으로 다

48) 김영돈外, (1985) 「제주설화집성(I)」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p. 887 ‘막산이(I)’

양하다. 막산이는 일꾼을 모두 부른 척하여 주인집에서 준비해 온 백 명 분의(오십 명, 삼십 명인 경우도 있다.)점심식사를 혼자서 먹어치운 다음, 낮잠까지 자고도 큰 논을 만들어 주인을 놀라게 한다.

ㄷ. 부잣집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많이 먹는 종을 먹여 살리기는 어려웠다. 막산이는 다시 강덕에서도 쫓겨난다. 각편(4)의 주인은 막산이의 배의 크기를 알고 난 뒤 서른 명 분의 밥과 술 한 동이를 먹이고 막산이를 내보낸다.

ㄹ. 부잣집의 종살이를 전전하던 막산이는 결국 그의 큰 배를 감당할 수 있는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나라에 진상할 소와 말을 잡아 먹고 살 작정으로 산에 오르게 된다. 산에 오른 막산이는 도둑들과 만나 힘을 겨룬 결과 도적들의 대장이 된다. 그는 제주와 대정 사이의 주요 교통로에서 길가는 사람들의 물건을 뺏고 산에서 방목하는 소와 말을 잡아 먹고 살게 된다. (1, 3, 4) 각편(6)에서는 도둑떼에 합류하지는 않지만 국마와 진상할 소를 잡아 먹는 것은 절도행위이므로 집을 나온 막산이는 도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ㅁ. 막산이의 배고픔은 도둑질에 의해 해소되는 듯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각편(3)에서 막산이는 도둑질을 하다가 결국 굶어죽고 만다. 각편(1) (4) (6)에서는 관가와 막산이의 전주인이 결탁, 막산이를 속여 잡는다. 특별히 각편(6)의 경우는 전주인과 관의 결탁 이외에도 같은 종 신분인 정운디가 관과 결탁하여 막산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중첩되어 있다.

## 5. 호랑이 잡은 밥장수 설화<sup>49)</sup>

49) (1) 임석재「한국구전설화」 평안북도편Ⅱ, 213, 보리밥장군

(2) 212, 식충이가 호랑이 잡다.

(3) 213, 통장군

호랑이 잡은 밥장수 설화는 밥은 많이 먹지만 힘이 없었던 밥장수가 집에서 쫓겨난 뒤 우연히 호랑이를 잡고 부자가 된다는 내용이다.

이 유형 설화를 서사단락화하면 다음과 같다.

ㄱ. 옛날에 밥을 많이 먹는 밥장수가 있었다.

그는 겉보기에는 힘이 세 보였지만 사실은 보통사람보다 더 힘이 없었다.

ㄴ. 그래서 그는 집에서 쫓겨났다.

ㄷ. 밥장수는 호환당한 집에 묵었다가 호랑이잡는 데에 참여하게 되었다.

ㄹ. 밥장수는 우연히 호랑이를 잡게 되었다.

ㅁ. 그 댓가로 그는 대접을 잘 받았다.

ㅂ. 그 곳을 떠나서 가다가 장수도적때문에 고생하는 집에 들르게 되었다.

ㅅ. 자신의 체구와 피를 이용해서 장수도적을 물리쳤다.

ㅇ. 밥장수는 잘 먹고 잘 살았다.

•

각편에 따라 호랑이 잡는 이야기와 힘센 도둑 물리치는 이야기가 모두 들어 있기도 하며 둘 중에 하나만 나타나기도 한다. 또 밥장수의 행적이 에피소드의 연결형태로 되어 있는 까닭에 설화의 전개는 전후 순서가 바뀌어 나타나기도 한다.

---

(4) 211. 식충장군 도둑 잡다.

(5) 217. 힘없는 장군

(6)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편) 426. 대식무력자

(7) 대계 2-8 438. 별거벗고 호랑이 잡은 밥장사

(8) 대계 2-2 687. 호랑이 잡은 밥장군

(9) 대계 7-16 621. 도둑 소굴에 들어간 식대장군

ㄱ. 옛날에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한 끼에 보리밥 두말을 먹는다고 하여 보리밥장군이라고도하고(1) 한 섬 한 말 한 두의 밥을 먹는 떠턴둥이, 보통사람의 50배를 먹는 식장수라고도 한다. (각편(1)의 변이 형태) 이들은 섬들이 말들이로 밥을 먹어대는 밥장수이다.

이들은 보통사람보다 훨씬 많이 먹고 체구도 커서 걸보기에 힘이 셀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보통사람보다 힘이 없다. 각편(1)과 각편(3)에서는 밥 한 알, 밥그릇 하나도 못 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각편(6)에서는 돈 한 냥도 못 지는 무력자로 되어 있다. 아홉 편 의 자료 가운데 각편(9)에서만 대식과 힘이 비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ㄴ. 밥장군의 집에서는 힘이 없어 집안일도 못하면서 엄청난 양의 밥을 먹어대는 밥장군을 감당하지 못하고 쫓아 낸다. (2, 3, 5, 6, 8)

각편(9)에서는 자신의 먹을 것을 대다가 집안이 몰락할 것을 걱정한 가장이 자신은 10년 동안 집을 떠나있고, 남은 사람들은 돈을 벌 것을 제의하고 집에서 나간다.

. 집을 떠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밥장수는 어느 산골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밥장수가 호랑이를 잡게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한 도입장치이다. 밥장수가 들어간 집은 가족이 호환을 당한 집이다. 밥장수의 체구와 대식을 본 주인은 그가 힘도 셀 것이라고 생각, 호랑이잡는 것을 도와달라고 청한다. 이렇게 해서 밥장수는 호랑이잡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

ㄷ. 각편(1) (2) (3) (5) (6)에서는 밥장수 쪽으로 호랑이를 몰거나 밥장수 혼자만이 산에 올라 가기로 한다. 각편(7)의 밥장수도 처음에는 앞에서 소리를 질러 호랑이의 주의를 뺏기로 했다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겠으니 혼자서 잡아 오겠다고 산에 올라 간다. 각편(8)에서는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위협에 겨우 소리를 지르자 호랑이가 밥장수 쪽으로 달려 든다. 과정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의 각편에서 밥장수는 혼자서 호랑이와 대면하게 된다. 각편(9)의 밥장수는 無力者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소리를 질러 조력하는 부분에서 단번에 소리를 내준다. 호랑이는 잘못해서 나무에 걸리거나 절벽에 떨어지는 등으로 어이없이, 우습게 죽는다. 그러나 밥장수외에는 그것을 본

사람이 없으므로 그는 자신이 호랑이를 잡았다고 거짓말을 한다.

각편(1)(2)(3)에서는 호랑이가 뛰어 오는 것을 보고 밥장수가 나무위로 도망을 간다. 호랑이가 나무 위까지 쫓아오자 놀란 밥장수는 바지에 똥을 싸면서 비명을 지르고 그 큰 소리에 놀란 호랑이가 나무사이에 끼여 죽는다. 각편(7)의 호랑이는 밥장수가 밭가 벗고 호랑이 굴에 찾아가자 옷벗은 사람이 서있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sup>50)</sup>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나무에 걸려 잡힌다. 각편(8)에서는 호랑이가 나무에 걸려 저절로 잡혔는데, 잡아야 할 호랑이가 한 마리 더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한 번 더 소리를 질러 주기로 하지만 밥장수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소리를 지르지 못한다. 힘센 도둑이 목숨을 위협하자 밥장수는 사흘 째 되는 날 밥을 잔뜩 먹고 가서 억지로 소리를 지른다는게 호랑이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화태똥을 뉘버린다. 그래서 두번 째 호랑이는 똥사태에 떠밀려가 죽는다. 각편(5)의 호랑이는 배가 고파 잡아 먹을 것을 찾던 차에 사람 소리가 나서 그쪽으로 뛰어 가다가 벼랑에 떨어져 죽는다.

힘이나 꺾와는 전혀 상관없이 호랑이가 우연히 저절로 죽거나 잡힌 것으로 처리하다 보니 회화화가 많이 되어 있다.

ㄴ. 밥장수는 호랑이를 잡았다 하여 힘센 장수로 대접을 잘 받고 재물도 얻어 부자가 된다. 각편(1)에서는 많은 금과 인삼을 주지만, 밥장수는 그것을 모두 가져갈 힘이 없어서 금은 사양하고 인삼만 하인에게 지워서 가져 간다. 각편(5)에서는 벼랑에 떨어진 호랑이를 들 힘이 없으므로 힘센 도둑에게 지워서 왕에게 바치자 왕은 금과 은을 하사한다.

각편(6)에서는 밥장수가 호랑이 가죽을 벗겨 진상하자 왕은 도둑을 막아 달라고 그

---

50) 여기서는 화자가 호랑이 잡은 밥장사 이야기전에 옷 벗은 사람을 보고 너무 좋아서 옷다가 먹이놓친 호랑이를 덧붙여 구연했던 것을 호랑이 잡은 밥장사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관계지어서 이야기한 것이다. 실컷 옷다 먹이놓친 호랑이는 각편(7)의 앞부분과 대계 8-14 186의 “금강산 선녀”를 참고할 것

를 도대장에 임명한다. 각편(7)은 호랑이 잡는 삽화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밥장수는 장군수를 먹어가며 도를 닦아서, 호환당한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던 사람이 그를 형님으로 모셔서 편히 잘 살게 된다. 각편(8)의 밥장수는 호랑이를 잡아준 댓가로 많은 돈을 받고 잘 살았다고 한다. 각편(9)의 식대장군은 많은 양의 인삼을 받는다.

ㄴ. 밥장수가 힘센 도둑을 꾀로 물리치는 삽화는 각편(1)(3)(4)(5)(6)(8)(9)에만 들어 있다. 각편(1)(3)(6)(8)에서는 이 삽화가 호랑이잡은 사건뒤에 전개되는데, 각편(5)에서는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고, 각편(4)는 호랑이 사냥은 없이 이 삽화만으로 되어 있다.

힘센 도둑은 가라도치중 또는 도둑떼일 경우도 있다. 이들은 부잣집이나 절 또는 나라의 골치거리로서 아버지를 잡아 먹어 한 집안의 표적이었던 호랑이와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ㄷ. 각편(1)(5)(8)에서 밥장수는 자고 있는 힘센 도둑을 드떨매(1), 장도리(5), 박달방망이(8)로 세계 내리치고 숨겨 놓은 다음, 마치 새끼손가락으로 때린 것처럼 행동한다. 도둑은 밥장수의 체구와 꾀에 넘어 가서 도망을 간다. 각편(4)에서는 밥장수가 소나무를 산처럼 쌓아둔 옆에 무쇠지계를 놓고 앉아서 기다린다. 이 경우에도 도둑들은 밥장수의 체구라든가 상상되는 힘에 지레 겁을 먹고 밥장수에게 굴복한다. 밥장수는 다시 꾀를 써서 이들을 하나씩 묶어 주인에게 넘겨 준다. 각편(3)에서는 각편(4)의 산처럼 높게 쌓인 장작더미와 무쇠지계의 효과를 이용하고, 각편(1)(5)(8)에서와 같이 도끼자루로 가라도치중의 이마를 때린 뒤 새끼손가락으로 때렸으니 이 정도지 주먹으로 쳤으면 죽었을 것이라고 속여 못된 중을 쫓아낸다. 각편(9)에서도 식대장군은 자고 있는 도둑 두목의 코를 방망이로 힘껏 때려서 제압한다. 각편(6)에서 도대장이 된 밥장수는 “맨손으로 호랑이잡은 도대장이 있으니 불한당은 백 명이고 천 명이고 와라. 모두 멸족을 시키겠다.”라고 써서 붙여놓게 하며, 이것을 본 도둑들은 겁을 먹고 다시는 오지 않는다.

ㄹ. 도둑이 도망치자 그 집에서는 밥장수를 크게 대접한다. 각편(6)의 밥장수는 도대

장을 지내면서 큰 배를 채우며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한다. 각편(9)는 도둑이 도망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식대장군이 도둑 두목으로 추대되어 도둑들과 함께 사는 것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도둑들은 식대장군을 몰아 내기 위해 힘센 장수를 데려온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는 식대장군의 고향소리에 힘입어 호랑이를 잡은 장수이다. 따라서 식대장군은 도둑소굴에서 배를 채워 가며 지내다가 식구들과 약속한 10년이 되었을 때 도둑들에게 금은보화를 많이 받아서 집으로 돌아간다. 그동안에 집도 많이 번창해서 부자가 되어 있다. 그래서 식대장군은 배를 채워가면서 잘 살 수 있었다고 한다.

밥장수는 힘은 없지만 자신의 체구와 꾀를 이용해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한다. 호랑이 잡거나 힘센 도둑 퇴치는 같은 성격의 일이다. 밥장수는 비록 우연이나 속임수에 의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 낸다. 그리고 타인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능을 하므로써 자신의 결핍 상황을 극복하고 있다.

## 6. 방귀쟁이 며느리 설화<sup>51)</sup>

51) (1) 대계 6-2 564. 방귀 잘 뛰는 며느리

(2)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북편) 678. 며느리의 방귀

(3) 대계 6-2 711. 며느리방구에 소리개가 된 시아버지

(4) 대계 8-2 31. 방귀쟁이 며느리

(5) 대계 7-6 568. 천태산 마고할미 방귀

(6) 대계 2-7 351. 방귀장이며느리의 시집살이

(7) 대계 1-7 322. 방귀타령

(8) 대계 1-2 411. 방귀 잘 뛰는 며느리

(9) 대계 1-7 554. 방귀이야기

(10) 대계 7-1 314. 방귀쟁이 며느리

방귀쟁이 며느리 설화는 방귀를 잘 뀌는 여자가 시집을 가서 방귀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이익을 보기도 하는 이야기이다.

이 유형은 설화 구성의 차이에 따라 네 가지 하위유형으로 나뉘어진다. 제 1 유형은 방귀쟁이 며느리의 시집살이가 주된 내용이다. 제 2 유형은 제 1 유형에 며느리의 소박과 배따고 시집으로 복귀하는 내용이 부연되어 있다. 제 3 유형은 제 2 유형의 구조와 같지만, 며느리 소박이후에 단순히 배따기가 아닌 내기시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제 2 유형과 구별하였다. 제 4 유형은 방귀쟁이 며느리의 시집살이, 소박이 없이 내기시합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 1) 제 1 유형

이 유형의 내용을 서사단락화하면 다음과 같다.

- ㄱ. 어느 집에 며느리가 들어 왔다.
- ㄴ. 며느리는 날이 갈수록 얼굴이 노래지고 몸도 말라갔다.  
시아버지가 그 이유를 물으니 방귀를 못 뀌어서 그렇다고 했다.
- ㄷ. 시아버지가 방귀를 뀌도록 했다.
- ㄹ. 며느리는 식구들에게 무거운 것을 잡고 있게 했다.
- ㅁ. 며느리가 방귀를 뀌자 집이 들썩거리고 모두 고통을 받았다.

단락 ㄱ부터 ㄹ까지는 방귀를 뀌기 전의 상황이고 방귀를 뀌고 난 다음의 상황은 ㅁ 단락에 들어 있다. ㄹ 단락까지는 단락의 내용이 유사하며 별 차이가 없는데 단락 ㅁ에서는 몇 가지 변이가 나타난다. 방귀를 뀌고 난 뒤가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ㄱ. 모든 각편의 발단은 어느 집에 한 며느리가 들어온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ㄴ. 그런데 그 며느리가 시집을 때와는 달리 얼굴이 점점 노랗게 뜨고 몸까지 마르는 게 병색이 완연했다. 며느리의 얼굴이 노래지는 이유를 묻는 사람은 대개 시아버지이다.

며느리는 자기 병의 이유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말하기가 어려워서 주저하다가 마침내 그 이유가 방귀를 참고 못 뀌어서임을 고백한다. 며느리가 자연스러운 신체현상인 방귀를 참는 것은 자신의 방귀가 보통 방귀가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ㄷ. 그러나 시아버지는 며느리 방귀의 위력을 모르는 지라, 며느리가 노랗게 뜨는 이유를 알고는 더 이상 방귀를 참지 말고 뀌라고 한다.

ㄹ. 자신의 방귀가 보통 방귀가 아니며 위력이 세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며느리는 시댁식구들이 방귀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똥가를 붙잡고 있기를 당부한다.

ㅁ. 그러나 며느리의 방귀는 상상을 초월하는 위력적인 것이었다. 며느리의 방귀로 인해 집이 온통 흔들거리고 시댁식구들은 고통을 겪는다.

이 단락에서는 며느리와 시집식구들의 입장이 전도되고 있다. 각편 (5) (6) (7) (8) (9) (10)에서는 방귀를 못 뀌어 ‘노랑병’이 들었던 며느리는 문제가 해결되지만, 시집식구들은 고통에 처하고 있다. 이것은 각편 (1) (2) (3) (4)에서 가족의 해체나 가족의 상실과 같은 문제로 심화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각편 (3)과 (4)에서는 며느리의 방귀바람에 시아버지가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각편 (2)에서는 며느리 혼자 시집에 남아 살았다고 한다. 각편 (1)에서는 며느리 방귀의 결과 가족 전체가 해체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나 대개 이 자료들은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을지라도 전승의 양상은 희화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제 2 유형<sup>52)</sup>

52) (1) 대계 1-2 371. 방귀 잘 뀌는 며느리

(2) 대계 7-10 848. 방귀로 배를 땀 며느리

(3) 대계 1-7 264. 며느리방귀

(4) 대계 7-16 612. 방귀쟁이 며느리

(5) 대계 8-6 517. 방귀 잘 뀌는 며느리

(6) 대계 5-1 284. 며느리와 방구소동

(7) 대계 1-9 229. 방구쟁이 며느리

(8) 임동권 「한국의 민담」 65. 방귀 잘 뀌는 며느리

제2 유형은 앞의 제1 유형의 방귀쟁이 며느리가 방귀로 인해 소박을 당해 친정으로 쫓겨가다가 다시 방귀로 인해 시집으로 복귀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소박당하는 사건을 축으로 하여 그 앞부분을 전반부, 뒷부분을 후반부라 할때 전반부의 서사단락은 제1 유형과 동일하므로 전반부에 대한 재서술은 생략하고 소박당한 뒤의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하겠다.

이 유형의 내용을 서사단락화하면 다음과 같다.

#### ㄱ. ~ㄴ. 제1 유형과 동일

- ㄴ. 시집에서는 방귀쟁이 며느리를 쫓아 보내기로 했다.
- ㄷ.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함께 친정에 가는데 잘 익은 배가 달려있는 배나무가 있었다.
- ㄹ. 시아버지는 먹고 싶었으나 따 먹을 수가 없었다.
- ㅁ. 며느리가 방귀를 뀌어 시아버지에게 배를 따 드렸다.
- ㅂ. 시아버지는 복방귀라고 치하하며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 갔다.

방귀쟁이 며느리 설화에서 며느리가 방귀를 뀌고난 뒤에 주목할 만한 변이가 일어나고 있음은 제1 유형의 고찰에서 본 바 있다. 전, 후반부의 이야기는 제1 유형과는 달리 비슷한 길이이므로 방귀를 뀌고 난 뒤의 상황이 좀 더 상세하게 되어 있으며, 방귀뀌기라는 행동을 전후로 하여 방귀의 성격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것이 제2 유형의 보편적인 형태이다.

제2 유형의 후반부는 며느리의 소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소박은 며느리의 위력적인 방귀가 시집에서 용납되지 않고 금해전 결과이다. 며느리의 소박사건이 나오는 부터 시집으로 복귀하게 되는 초까지의 단락별 변이양상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ㄴ. 며느리의 엄청난 방귀에 놀란 시댁식구들은 ‘이렇게는 못 살겠다.’ ‘며느리 데리고 있다간 큰 일 나겠다’ ‘체면 깎여서 안된다’ 등의 이유를 내세워서 방귀쟁이 며느리를 쫓아내기로 한다.

대개의 각편에서는 며느리에 대한 소박이 방귀사건 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1, 5)

ㄸ. 소박을 당한 며느리는 가마를 타고 시아버지와 함께 친정으로 간다. 혼자 가거나 하인들과 함께 가는 각편도 있지만, 시아버지와 동행하는 각편이 많다. 시아버지와 함께 가는 며느리는 소박을 면하고 시집에 되돌아가지만 시아버지와 함께 가지 않은 며느리는 시집에 되돌아가지 못하거나 복귀가 늦어진다.<sup>53)</sup>

소박당한 며느리가 혼자 가지 않고 시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은 과거 婚俗의 반영이라기 보다는 백해무익한 것으로 생각되던 며느리 방귀가 가치로울 수 있음을 보여주어 소박을 면하고자 한데서 온 장치로 보인다. 동행인이 시댁식구 가운데서 특히 시아버지로 나타나는 것은 시댁에서 가장 권위있는 사람이 시아버지인 까닭이다. 이것은 일종의 설화 특유의 전승양식에서 비롯된, 이야기 핵심부분으로의 直入형태<sup>54)</sup>라고도 할 수 있겠다.

며느리의 친정을 향해 가던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도중에 먹음직한 과일이 잔뜩 열려 있는 과일나무를 보게 된다. 과일나무는 감나무인 경우도 있지만 대개 배나무로 나와 있다. 각편(8)의 경우는 만병통치의 약배로 되어 있다.

ㅇ. 시아버지는 잘 익은 배를 보니 군침이 돌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딸 수가 없었다.

53) 각편(7)의 경우는 시집에서 방귀쟁이 며느리를 소박놓고 아들을 재혼시키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아버지의 동행이 아닌 하인들의 수행이 나온다. 따라서 며느리의 방귀의 위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였지만 며느리는 시집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것이다.

각편(6)의 경우는 시아버지없이 며느리 혼자 친정으로 돌아가다가 방귀를 긍정적으로 사용하여 배고통을 면하고 그것이 임금에게까지 알려져서 상을 받게 되자 시집에서 도로 데리러 오게 된다. 시아버지가 동행했다면 복방귀의 효용을 시아버지가 직접 확인하고 시집으로 되돌아갔을텐데,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귀가 늦어진다.

54) 강진욱(1983), “명의담에 나타난 인간 및 세계 인식”, 『민속어문논총』 계명대 출판부 p. 609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설화는 전승이란 특이한 양식때문에 이야기의 핵심부분으로 直入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각편(6)에서 혼자 가던 며느리는 배는 고프지만 배를 딸 재주가 없어서 쳐다만 보고 있는 비단장수와 상장수를 만난다. 각편(7)에서는 밥도 못 먹고 쫓겨가던 며느리와 하인들이 배고프던 차에 감나무를 보게 된다. 각편(8)은 만병통치의 약배로 알려진 만큼, 모두가 따고 싶어하지만 딸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나무에 달린 배는 만병통치의 약배인데 이 나무가 어찌나 높은지 작대기가 안닿고 사람이 올라 가자니 너무 커서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 못 올라가지 그러니 배는 겨울이 되면 나무에 달린 채 썩어버린단 말야. 그리고 지금 임금님께서 앓아 누워 계시는데 이 배 세 개만 잡수 시면 나올 것이야”...

ㄴ. 며느리는 방귀를 끼어 시아버지에게 배를 따드린다.

각편(6)에서는 배고픈 비단장수와 상장수 그리고 자신이 먹는다. 각편(7)에서도 배고픈 하인들과 며느리 자신이 먹는다. 이 유형의 모든 각편에서는 복방귀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방귀로 배를 따는 것만이 나오는데 각편(4)에서는 방귀로 배를 탄 후 다시 방귀로 똥을 잡는 것이 반복하여 나타난다. 각편(8)에서는 약배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며느리가 방귀를 끼어 약배를 탄다.

ㄷ. 며느리의 방귀 덕에 배를 먹게 된 시아버지는 ‘쓸방귀’ ‘복방귀’라고 며느리의 방귀를 칭찬하고 며느리를 다시 시집으로 데려간다.

각편(6)에서는 방귀로 배를 탄 것이 임금에게까지 알려져 기술이 좋다는 이유로 임금에게 상을 받은 후 시집에서 며느리를 데려 간다. 이 경우 방귀의 가치로움을 직접 봐야 할 시아버지가 없었기때문에 방귀쟁이 며느리에게 임금의 상이 주어지므로써 며느리의 방귀가 가치롭다는 공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이로인해 며느리는 시집으로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각편(7)의 경우는 며느리 방귀의 가치로움이 나타나긴 하지만 남편이 이미 재혼을 했기 때문에 시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각편(8)에서는 며느리가 탄 만병통치의 약배를 임금님에게 바쳐서 임금님의 병을 낫게 하고 며느리 자신도 약배를 먹어 방귀뀌는 것을 고치게 되어 모두 잘 살았다고 한다.

스부터 초까지의 단락변이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제 2 유형의 후반부에서 며느리의 방귀는 전반부에서와 그 성격을 달리 한다. 전반부에서 며느리의 방귀는 공포스러운 것이었지만 후반부에서는 가치롭고 복된 것으로 되어 있다. 전반부에서는 며느리 방귀의 결과 집과 기물이 흔들거리고 날아가는 재산의 손실과 시대식구가 날아가 버리는 생명의 위협 등이 나타나지만 후반부에서는 며느리 방귀의 결과 일차적으로는 배를 먹고 싶었던 시아버지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며, 기술이 좋다하여 왕이 며느리에게 포상하르로써 부와 명예를 얻고 있다. 더 나아가 각편(8)의 경우는 며느리가 방귀로 탄 배가 만병통치의 약배였던 것으로 말하면서, 그 배로 왕의 병을 낫게 하고 며느리의 방귀도 치료했다고 하여 며느리의 방귀가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까지 구제한 가치로운 방귀였다고 한다. 따라서 며느리는 방귀로 인해 쫓겨났다가 방귀로 인해 다시 시집으로 복귀하게 된다.

제 2 유형은 방귀가 금지되었다가 그 방귀가 시대와 나라에 봉사가능한 성격으로 바뀌면서 며느리의 소박이 취소되는 형태임을 이상에서 살펴 보았다.

### 3) 제 3 유형<sup>55)</sup>

이 유형은 방귀쟁이 며느리가 친절으로 쫓겨가는 이야기라는 점에서는 제 2 유형과 같다. 그러나 이 유형 설화의 후반부에는 소박당한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함께 친절가는 단락이 없으면서 장삿꾼과의 내기시합모티프가 나타나는 차이를 보이므로 제 2 유형과 구별하였다.

---

55) (1) 대계 4-2 473. 방귀쟁이 며느리

(2) 대계 6-3 116. 방귀 잘 뛰는 며느리

(3) 대계 6-9 713. 며느리 방귀소동+대계 6-9 324. 방귀시합

(4) 대계 6-2 713. 방귀 잘 뛰는 며느리와 꿩파리

(5) 대계 5-1 444. 며느리 방귀소동

(6) 대계 6-6 547. 방귀 잘 뼀 며느리

제 3 유형의 서사단락은 다음과 같다.

ㄱ. ~ㄴ. 제 1 유형과 동일

ㄴ. 며느리는 소박을 당했다.

ㄷ. 하루는 한 장삿군이 왔다가 며느리에게 내기시합할 것을 제의했다.

ㅇ. 며느리가 내기에 이기고 장삿군의 짐을 다 빼앗았다.

이 유형 역시 제 2 유형과 마찬가지로 제 1 유형의 방귀쟁이 며느리 이야기가 전반부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유형에서는 며느리의 방귀로 고통을 받기는 하지만 그것이 며느리의 소박사건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며느리가 소박당하는 각편 (3) (4)의 경우에도 소박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은 아니다. 이는 이 유형이 제 2 유형과 달리 ‘내기모티프’를 차용하고 있는데서 오는 현상일 것으로 보인다. 즉 제 2 유형에 내기모티프가 삽입되면서 설화의 관심이 내기의 양상 쪽으로 전이됨에 따라 며느리의 소박-복귀라는 사건이 2차적인 문제로 전락, 탈락된 것으로 보인다. 각편 (1)의 시아버지는 며느리 방귀의 위력을 보고 쫓아내기는 커녕 “야! 그만 하면 인제 그런 방구 가졌으면 그 방구 가지고서 돈벌이를 좀 해야되겠다.”고 말한다.

ㄷ. 따라서 며느리의 소박단락이 있는 각편 (3) (4)의 경우만 장삿군을 길에서 만나고 그외의 각편에서는 장삿군이 며느리가 사는 곳에 온것으로 되어 있다. 장삿군은 대개 유기장사인데 삼베장사 또는 면사람들이기도 하다.

장삿군들은 물건을 팔기 위해 왔다가 방귀쟁이 며느리에게 내기를 제의하게 된다. 각편 (1)에서는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내기를 제의하고 각편 (3) (4)에서는 방귀를 잘 뀌어 쫓겨났다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유기장사가 시합을 제의한다. 각편 (5) (6)에는 내기제의를 단락이 없다. 각편 (6)의 경우 내기제의를 단락은 없지만, 장삿군의



물건을 사지 않고 빼앗으려는 의도는 각편(7)의 며느리와 같다.<sup>56)</sup>

내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편(1) 며느리가 손대지 않고 감을 모두 떨어 뜨리면 삼베장사가 삼베를 다 주고, 못 하면 며느리가 삼베를 모두 사기

각편(2) 유기장사의 굿머리와 며느리의 방귀뀌기시합.

유기장사가 지면 유기집을 모두 주고, 며느리가 지면 유기장사를 따라 가기

각편(3) 시합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음. 시합의 결과 유기장사가 지면, 유기집을 모두 주기

각편(4) 유기장사의 1. 2. 3차 굿이 들어 간 팽과리 소리에 맞춰 방귀뀌기. 승, 패의 여부에 따른 보상내용은 나와 있지 않음.

각편(5)와 (6)은 내기의 단락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 며느리와 유기장수 그리고 며느리와 면사람들이 긴장된 대립관계로 놓여 있고 며느리가 그들과의 관계에서 이겨 이득을 취하는 점에서 내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각편(5)의 며느리는 돈이 없어 세금을 낼 수 없는데도 면사람들이 독촉해대자 방귀를 끼어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동둥 떠다니게 만든다. 각편(6)의 며느리는 유기장수의 집을 뺏을 작정을 하고 유기장수 모르게 방귀를 끼어 유기집을 자기만 아는 곳으로 날려 보낸다.

각편(1) (5) (6)의 방귀는 위력을 지닌 점에서 본래적인 의미의 방귀라 할 수 있고 각편(2) (4)의 방귀는 위력적이기 보다는 한없이 뿜 수 있는 특별한 방귀이므로 희화화된 방귀라고 할 수 있다.

---

56) 각 편(6)은 이 유형설화가 요구하는 모티프를 거의 갖추고 있으나 제1유형에 해당하는 단락 중간에 유기장수와와의 이야기가 나온 뒤 다시 시집 식구들을 날려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단락의 순서에서 제3유형의 공통단락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다른 각편과 비교해보면 전혀 나타나지 않는 형태이므로 원래는 제1유형 구연 이후 유기장수의 집 뺏기가 나타나는 것이나, 화자의 혼돈에 의해 이같은 형태를 취하게 된 것으로 보고 제3유형에 귀속시켰다.

내기의 내용이나 방귀의 성격은 각기 차이를 보이지만 방귀쟁이 며느리와 장삿군이라는 자신의 전부를 걸고 내기에 임하는 것은 동일하다. 떠돌이장삿군의 집은 그의 전재산이며, 며느리의 몸은 그의 유일한 재산인 것이다.

이 내기시합에서 며느리가 패배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다. 며느리는 삼베와 유기 등의 물건을 모두 빼앗아서 부자가 되며 장삿군은 빈털털이로 전락한다. 각편(5)에서 며느리의 방귀바람에 둥둥 떠다니다 겨우 놓여난 면사람들은 돈 안달라고 할테니 격장말라고 하며 가버린다. 내야할 돈을 내지 않는 것 또한 돈을 버는 것이다. 각편(3)을 제외한 모든 각편은 단락 〇으로 끝나는데 각편(3)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며느리의 승리를 빌미로 하여 다시 사건을 벌인다. 내기에 지고 유기집을 모두 빼앗긴 유기장사는 시합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며느리를 관가에 고발한다. 관장은 며느리에게 쟁과리를 치는 사람을 따라서 방귀를 똥다면 백 냥을 주고 그렇게 못하면 백 냥의 벌금과 사형에 처하겠다는 조건으로 내기시합을 제의한다. 이 내기시합에서도 며느리는 승리하여 상금을 탄다.

일면, 복잡한 듯 하지만 관장의 제의에 따른 이 내기시합은 유기장사와의 그것에 다름아니며, 같은 모티프의 중첩을 통해 두 배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번째 모티프에는 며느리에 대한 관장과 유기장수의 부당한 억압이 나타나고 있어 흥미롭다.

관장은 유기장사의 탄원에 따라 며느리만을 징치하려 한다. 이때 관장이 제시한 내기의 조건은 며느리가 졌을 경우, 돈은 물론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극단적이고 심각한 조건으로서 방귀쟁이 며느리에 대한 악의가 깃들여 있다.

#### 4) 제 4 유형<sup>57)</sup>

---

57) (1) 대계 7-13 271. 방구쟁이 며느리

(2) 대계 1-2 373. 방구쟁이 여자

(3) 대계 6-4 753. 방귀 잘 똥는 처녀

이 유형의 중심모티프는 내기시합이다. 이 유형에는 제 1 유형의 방귀쟁이 며느리의 행적이 나타나지 않으며 주인공 또한 방귀쟁이 여자로 확대되어 있다.

이 유형의 서사단락은 다음과 같다.

- ㄱ. 방귀쟁이 여자가 어떤 사람을 만났다.
- ㄴ. 방귀쟁이 여자가 그 사람에게 내기를 제의했다.
- ㄷ. 방귀쟁이 여자가 이겨서 상대방의 재산을 빼앗았다.

제 3 유형에서는 내기모티프가 수용되면서 방귀쟁이 며느리의 소박사건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내기모티프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이야기거리가 되는 매우 흥미있는 것이므로 방귀쟁이 며느리의 시집살이는 내기모티프에 가려진 것이다. 제 4 유형은 방귀쟁이 며느리의 시집살이는 생략되어 있고, 내기모티프가 중심이 되고 있다. 각 단락별로 변이양상을 살펴 보기로 한다.

ㄱ. 이 유형의 경우 제 1 유형의 서사단락의 생략으로 인해 방귀쟁이 며느리는 성격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방귀쟁이 며느리는 방귀쟁이 여자, 방귀쟁이 새댁, 큰애기 등으로 확산되어 나타난다. ‘방귀쟁이 여자’로 통칭하기로 한다. 방귀쟁이 여자와 만나게 되는 사람은 대추장사, 비단장사(각편1), 지우(각편2), 절궁패(각편3) 등으로 다양하다. 방귀쟁이 며느리와 만난 사람들이 대개 장삿군면서, 모두 남자였던 데 비해 이 유형에서는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나타나며, 여자인 경우도 있다.

각편(1)에서 방귀쟁이 여자는 장날 물동이를 지고 가다가 대추장사를 만난다. 그다음 장날에는 역시 물동이를 지고 가다가 비단장사를 만난다. 각편(2)에서 방귀쟁이 새댁은 집을 짓고 있는 지우를 만난다. 각편(3)에서 큰애기는 절궁패<sup>58)</sup>를 만난다.

58) 절립(乞粒) 패. 동네에 특별히 경비가 필요할 때 여러사람이 단체를 조직하여 풍장과 복색을 갖추어 각처로 다니면서 풍악을 치고 재주와 익살을 부려 돈이나 곡식을 얻는 일을 하는 사람들. (구비문학대계 6-4p. 753의 주)

ㄴ. 내기시합을 제의하는 사람은 장삿군들이기도 하고 방귀쟁이 여자 쪽이기도 하다. 각편(1)에서 유기장사와 비단장사는 물둥이를 이고 가는 여자가 방귀뀌고감을 시비하다가 내기시합을 제의한다. 각편(2)와 (3)에서는 방귀쟁이 새댁과 큰애기가 내기시합을 한다.

내기시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편(1) 방귀뀐 만큼 대추주기, 매고치기에 맞춰 방귀뀌기

각편(2) 못박기와 방귀뀌기. 못박기가 이기면 방귀쟁이 새댁의 제산을 뺏고, 방귀뀌기가 이기면 방귀쟁이 새댁에게 집을 주기로 함.

각편(3) 상쇠와 수농부 몇 명이 큰애기의 방귀를 따라서 매구를 치면 동네결궁을 허락하고, 못 따라하면 동네결궁을 할 수 없다.

ㄷ. 각편(1)의 며느리는 대추 한 섬이 없어지도록 방귀를 끼어 대추 한 섬을 빼앗는다. 또 비단장사의 매고가 방귀를 못 따라가서, 비단 한 짐은 모두 며느리의 차지가 된다. 각편(2)의 며느리는 지우가 석가래를 다 절도록 방귀를 끼어대어 막 지은 새 집을 빼앗는다. 각편(3)에서는 큰애기가 방귀를 오뽕뽕뽕... 끼어대자 따라칠수가 없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여 상쇠가 매구채를 놓으므로써 지게 된다. 큰애기는 “가시요. 아 고런 매구를 가지고 댕임선 너무 동네 마당뽕이를 헛다고...”하면서 결궁패를 쫓아낸다. 결궁패를 쫓아낸 결과, 큰애기가 얻어낸 물건은 없지만 결궁패가 마당뽕기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과 곡식을 주지 않은 것은 큰애기가 살고 있는 마을의 이익이다. 이것은 제3 유형의 각편(5)에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이익을 본 방귀쟁이 며느리와도 같은 경우이다.

## B. 구조와 의미

이절에서는 거인형설화의 구조와 의미를 살펴 보겠다. 이를 위해서 거인설화에서 했던 방법대로 각 유형의 서사단락을 추상화한 뒤 단락소에 따라 구조를 추출하고 그 의미를 살펴 보기로 한다.

### 1. 오누힘내기 설화

- ㄱ. 오누갈등
- ㄴ. 오누힘내기
- ㄷ. 어미의 개입
- ㄹ. 누이의 죽음

이것은 고난-해결의 시도-고난의 심화-좌절로 나타난다.

### 2. 제주도 장수할망 설화

- ㄱ. 할망의 장애
- ㄴ. 할망의 힘내기
- ㄷ. 할망의 장애물 제거
- ㄹ. 할망의 장애물 이동시킴

이 설화의 구조는 고난-해결의 시도-해결-해결(좌절)로 정리된다 마지막 단락소가 해결이기도 하고 좌절이기도 한 것은 의미의 해석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 3. 방귀쟁이들의 방귀시합

- ㄱ. 두 방귀쟁이의 공존
- ㄴ. 한 방귀쟁이의 힘의 과시
- ㄷ. 방귀쟁이들의 힘내기
- ㄹ. (승부)

설화의 구조는 고난-해결의 시도-해결의 시도-(해결)로 되어 있다.

### 4. 제주도 밥장수 설화

- ㄱ. 밥장수의 食결핍
- ㄴ. 축출당한 밥장수
- ㄷ. 주인을 속임
- ㄹ. 축출당함
- ㅁ. 도둑이 됨
- ㅂ. 주인에게 속아 잡혀 죽음

설화의 구조는 고난-심화된 고난-해결의 시도-좌절-해결의 시도-좌절로 정리된다.

### 5. 호랑이 잡은 밥장수 설화

- ㄱ. 無力者의 食결핍
- ㄴ. 축출당함
- ㄷ. 호랑이 사냥 참가
- ㄹ. 우연히 잡음
- ㅁ. 성공

ㄴ. 장수도적과의 거짓 힘내기

ㄷ. 성공

설화의 구조는 고난-심화된 고난-해결의 시도-의외의 행운-해결-고난-해결

## 6. 방귀쟁이 며느리 설화

### 1) 제1유형

ㄱ. 방귀쟁이 여자의 시집살이

ㄴ. 방귀를 참아 발병

ㄷ. 시아버지의 허락으로 방귀를 뀌

서사구조는 고난-심화된 고난-해결의 시도-(해결)로 나타난다.

### 2) 제2유형

이 유형은 제1유형에 방귀를 뀌 뒤의 상황이 부연되어 있는 유형이다.

ㄱ. 방귀쟁이 여자의 시집살이

ㄴ. 방귀를 참음

ㄷ. 시아버지가 방귀뀌기를 허락함

ㄹ. 방귀를 뀌

ㅁ. 소박당함

ㅂ. 방귀로 배따기

ㅅ. 시집으로 복귀

설화의 구조를 살펴 보면 고난-고난의 심화-해결의 시도-해결-좌절-해결의 시도-해결로 나타난다.

## 3) 제3유형

이 유형 역시 제2유형과 마찬가지로 제1유형에 방귀를 뀌 뒤의 상황이 덧붙여져 있는 유형이다.

- ㄱ. 방귀쟁이 여자의 시집살이
- ㄴ. 방귀를 참음
- ㄷ. 시아버지가 방귀뀌기를 허락함
- ㄹ. 방귀를 뀌
- ㅁ. (소박당함)
- ㅂ. 며느리와 장삿군의 힘내기
- ㅅ. 며느리의 승리

설화의 구조는 고난-고난의 심화-해결의 시도-해결-(좌절)-해결의 시도-해결로 되어 있다.

## 4) 제4유형

이 유형은 앞의 1. 2. 3유형들과 달리 ㄱ부터 ㅁ까지의 시집살이 단락이 없다.

- ㄱ. 방귀쟁이 여자와 어떤 사람의 힘내기
- ㄴ. 방귀쟁이 여자의 승리

설화의 구조는 힘의 발휘와 성취로 볼 수 있다.

이제까지 거인형설화에 해당하는 여러 설화의 구조를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는 구조로 구현된 각 설화의 의미를 살펴 보기로 한다.

오누힘내기 설화는 패자인 누이를 주체로 하여 구조를 파악했다. 이것은 전설 일반이 승자보다는 패자쪽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전승되고 있는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유형 설화를 거인형설화로 볼 때, 질서의 주체화되기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거인의 모습과 가까워 보이는 쪽이 누이인 까닭이다.

力士인 오누이의 갈등은 공존할 수 없는 두 세력간의 다툼을 상징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누힘내기는 양웅불립의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필연적인 설정이다. 대개의 각편에서 누이의 힘은 오라비보다 센 것으로 되어 있으나 힘내기의 결과는 오히려 누이의 패배로 나타난다. 아들 편을 든 어미의 부당한 개입은 누이의 납득할 수 없는 패배에 대한 설명이 되면서 누이의 억울한 죽음을 더욱 부각시킨다.

제주도 장수할망 설화는 힘내기모티프가 중심인 점에서는 오누힘내기 설화와 유사한데, 남녀간의 대결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우회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할망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그가 물을 길러 가는 길에 들음돌이 놓여 있어 지나다니기가 불편했던 때문으로 되어 있다. 그가 들음돌을 옮겨 놓는 것도 아무도 없는 새벽의 일이다. 이것은 이 설화가 남녀의 역할 및 영역의 구별이 굳어져 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단락을 해결로 볼 수 있는 것은 힘을 거리낌없이 발휘하는 심돌 강씨할망의 경우이고 문만호와 경김택며느리의 경우는 같은 행동이지만, 그것이 타의전 자의전 억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좌절로 해석된다.

방귀쟁이들의 방귀시합 유형의 구조는 시작은 있으나 사건을 마무리해주는 결구가 없는 파격적인 구조이다. 이것은 소화의 전승상의 특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화는 이야기를 통해 웃고 즐기는 데에 전승의 목적이 있으므로, 사건의 전개보다는 이야기의 흥미를 고조시켜 웃음을 유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유형의 구조는 특히 상황묘사에 대한 관심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설에는 아기장수 유형과 같

이 미천한 신분의 영웅에 대한 억압과 그들의 좌절이 많이 나타난다. 제주도 밥장수의 좌절에는 그가 종이면서 배가 큰 장수라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결핍과 축출이라는 고난의 심화. 반복 끝에 좌절에 이르는 제주도 밥장수 설화의 구조는 비범한 인물을 배치하는 사회의 모습 그 자체인 바, 폐쇄의 뿌리깊음과 완강함에 다름아닌 것이다.

앞에서는 장수의 大食이 문제가 되었는데, 호랑이 잡은 밥장수 설화에서는 무력자의 대식이 문제이다. 힘이 없으면 밥이라도 조금 먹거나 밥을 많이 먹으면 힘이 거기에 비례하거나 해야 한다. 그러나 밥장수는 대식하지만 무력한 존재이다. 그로 인해 마침내 집에서도 쫓겨나는 고난에 처한 밥장수는 호환당한 집에 묵었다가 호랑이 사냥에 참가하게 된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것은 밥장수에게 부가된 또 하나의 고난으로 보인다. 그러나 호랑이 사냥의 참가는 오히려 고난의 해결을 위한 시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호랑이를 잡는 것은 호환당한 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식무력자의 고난을 해결해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식무력자는 호랑이를 보고 무서워서 소리도 못지르지만, 호랑이의 실수에 의해 손 하나 대지 않고 호랑이를 잡게 된다. 그 결과 호환당한 집으로 부터 사례를 받거나, 나라의 도대장으로 임명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자신의 고난도 해결하고 있다. 각편에 따라 나타나지 않기도 하는 장수도적 제치는 호랑이 사냥과 같은 성격의 사건으로서, 반복을 통해 흥미를 배가시키는 기능이 있다.

이 유형 설화는 고난에 처한 주인공이 집에서 축출당한 뒤 고난이 해결되고 있는 전형적인 행운담<sup>59)</sup>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무모할 만한 용기와 우연 등에 의해 호랑이와 장수도적이 제치되고 있는 것이다.

방귀쟁이 며느리 설화는 이야기 내용의 차이에 따라 네 개의 하위유형으로 구별했던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각 유형의 구조에 의하면 방귀쟁이 며느리 유형은 며느리가 방

59) 김대숙(1988), p. 57 참고

귀를 편 다음에서 구조적 변모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소화의 성격상 방귀를 끼기 전 보다는 방귀를 편 후가 더 흥미있기 때문이다.

제1유형은 방귀쟁이 며느리의 시집살이에 치중하여 방귀를 편 뒤의 이야기가 짧은 편이다. 고난은 해결되기도 하지만 회화화가 지나쳐서 사건이 전개되지 않고 우스개로 끝나버리기도 한다. 59)

제2유형은 방귀의 위력이 너무 세서 소박당한 며느리가 방귀로 배를 따고 시집으로 복귀하여 방귀로 인한 고난이 해결된다. 방귀의 위력이 생산적으로 사용된 뒤 시집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3유형에서는 방귀쟁이 며느리의 소박 단락이 생략되어 있기도 하다. 또는 소박당한 며느리가 시집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시집과의 관계에서 흥미로웠던 며느리의 방귀가 그 자체의 생산성만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며느리의 배따기가 짐뻏기로 나타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제4유형에서는 방귀쟁이 며느리의 시집살이 단락은 모두 탈락되고 방귀 힘내기만이 따로 전승되고 있다. 내기시합의 흥미성과 생산성이 이와 같은 변이형을 낳은 것으로 보인다.

### C. 거인설화 모티프의 계승

흥미있는 모티프는 살아 움직이고 있는 생명체와 같다. 그것은 새로운 이야기를 독자적으로 형성할 수도 있고, 기존의 이야기에 결부되어 그것을 풍부하게도 하는 중요한 것이다. 60)

거인설화에 보이는 대의, 성기사냥, 성기로 다리놓기(성기로 자리깔기), 힘내기, 대식,

59) 이상일(1982), “설화장르론” 「민담학 개론」 p. 43

60) 강진옥(1985), p. 253

배설 등의 여러 모티프 가운데 거인형설화에 계승되고 있는 것은 힘내기, 대식, 배설의 세 모티프로 한정된다.

대의, 성기로 사냥하기, 성기로 다리놓기(성기로 자리잡기) 등의 모티프가 다른 설화에 전승되지 않고 거인설화의 모티프로 그친 것은 이들 모티프의 외형적인 요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온 나라 또는 온 섬의 옷감을 모두 모아도 거인의 옷 한 벌이 안 될 정도였다는 대의모티프나 성기로 온 섬의 물고기와 짐승을 잡았다는 성기사냥모티프, 성기로 강에 다리를 놓아 사람들이 건너가게 해주었다는 성기로 다리놓기모티프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체구를 가진 인물의 설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설화라 할 지라도 위의 모티프들을 계승할 만한 인물의 형상화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까닭에 향유층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 모티프는 거인설화 내에서만 전승되는 것으로 보인다.

모티프 계승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선택적 계승 양상으로부터 우리는 설화일반의 전승 방향이 외모보다는 행위에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이제 거인형설화에 나타나는 힘내기, 대식, 배설모티프의 계승양상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 1. 힘내기모티프의 계승

힘내기모티프를 계승한 구전거인형설화에는 오늬힘내기와 제주도 장수할망설화가 있다. 두 설화에 나타나는 힘내기모티프의 계승양상을 힘내기의 주체, 방법, 결과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기로 하겠다.

오늬힘내기 설화에서 힘내기의 주체는 남매가 가장 빈도높게 나타나며 남매는 힘의 장사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밖에 남매 아닌 다른 인물이 주체로 나온 경우라도 힘이 센 것으로 나오며, 힘의 강도는 이들 인물을 장사, 장군, 역사, 신선, 선녀, 보살, 용, 부대 등과 같이 상징적인 의미로 표상화시키고 있다.

힘내기의 내용은 남자는 나막신을 신고 서울에 다녀오고 여자는 성을 쌓는 것이 가장 빈도 높게 나타난다. 그밖에 탐쌍기, 돌나르기, 산두르기, 다리놓기, 개울내기 등의 변이도 있다. 모두 보통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공사이다.

힘내기의 결과는 여자의 힘이 우월한데도 여자가 저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여자의 죽음 외에 남녀의 죽음, 남녀, 어미의 죽음, 남자의 패배, 여자의 패배, 무승부, 생사불명 등으로 나타난다.

제주도의 장수할망 설화에서 힘내기의 주체는 심돌 강씨할망, 문만호며느리, 경김댁며느리 등으로 불리우는 힘센 며느리와 동네 청년들이다.

힘내기의 방법은 들음돌들기이다. 청년들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들음돌을 들어 보지만, 며느리는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들음돌을 들고 있어 양자간의 힘내기는 비공개적이고, 소극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간접적인 힘내기이지만 힘내기의 결과, 며느리는 등에 물허벅을 진 상태에서 들음돌을 가볍게 들어 올려 다른 곳에 던져 버린다. 동네에서 꽤 힘이 세다는 젊은이가 겨우 테역을 가르고(잔디의 이파리 위까지 들어 올리고), 더 힘센 사람이 한 치, 가장 힘센 사람이 한 뼘을 겨우 들어 올리는 돌을 가볍게 들어 던져 버렸다는 것에서 며느리의 위력을 짐작할 수 있다.

힘내기만으로는 며느리가 승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며느리의 힘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자신에 의해 억압되는 쪽으로 전승되고 있으므로, 힘내기의 결과는 며느리의 좌절이라고 할 수 있다.

방귀쟁이들의 방귀시합 설화에서 힘내기의 주체는 대개 남녀 방귀쟁이인 것으로 되어 있다. 힘내기의 형태는 방귀의 위력 과시이다.

이때 힘내기는 내기의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내기의 결과에는 큰 관심이 없다.

## 2. 대식모티프의 계승

대식모티프를 계승한 구전거인형설화에는 제주도 밥장수 설화와 호랑이 잡은 밥장수 설화가 있다. 두 설화에 나타나는 대식모티프의 계승양상을 대식의 주체, 방법, 결과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기로 하겠다.

제주도 밥장수 설화에서 대식의 주체는 여러 계층에서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막산이’로 대표되는 종을 주체로 삼았다. 막산이는 체구가 크고 힘이 장사이며 일도 잘한다. 그러나 배가 너무 커서 말밥, 섬밥을 먹는데, 날마다 원하는 양의 밥을 먹을 수는 없으므로 항상 배고픔에 시달린다.

주인집에서 주는 밥만으로는 배를 채울 수가 없는 막산이는 밤마다 동네에서 도둑질을 하거나, 일꾼을 많이 불러 일해야 하는 경우 혼자서 그 일을 해내고 수십명 분의 밥을 먹는다.

대식으로 인해 막산이는 계속해서 주인집에서 축출을 당한 끝에 결국 도둑이 되어 살다가 굶어 죽었다고도 하고, 관가에 잡혀 죽었다고도 한다.

호랑이 잡은 밥장수 설화에서 대식의 주체는 大食無力者이다. 그는 체구와 먹는 양으로 봐서는 장수이지만, 과장해서 말하면 돈 한 냥도 못지고, 밥 한 알도 못들며, 다른 식구들이 벌어 먹여야 하는 ‘식충이’이다.

따라서 그는 대식으로 인해 집에서 축출을 당하는데, 축출의 요인인 밥장수의 대식은 그를 장수로 보게 하는 외적 징표로 작용하므로써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얹혀 살았던 그의 소극적인 삶이 전환된다.

역전된 대식의 기능에 의해 밥장수는 자신의 대식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

### 3. 배설모티프의 계승

배설모티프가 중심인 거인형설화에는 방귀쟁이 며느리 설화가 있다. 배설의 주체는 며느리이다.

배설의 형태는 방귀쟁이 설화라는 이 유형의 명칭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일차적

으로는 방귀뀌기이다. 이것이 2유형에서는 방귀로 배따기, 3유형에서는 방귀로 배따기, 장삿군의 뺨과리 소리에 맞춰 방귀뀌기, 4유형에서는 소리에 맞춰 방귀뀌기로 나타난다. 방귀로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 방귀의 형태도 위력적인 방귀에서 비위력적인 회화화된 방귀로 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설의 결과 방귀쟁이 며느리의 제1유형에서 며느리는 방귀를 참아서 생긴 병이 낫고 시집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 3, 4유형에서는 방귀로 배를 따서 소박을 면하거나 장삿군 등과의 내기시합에서 이겨 부자가 되고 있다.

## IV. 모티프의 변모양상과 의미

앞에서는 거인설화를 원형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거인설화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거인형설화의 존재양상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본장에서는 이제까지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거인설화와 거인형설화 사이에 나타나는 변모의 양상과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거인설화와 거인형설화 사이의 변모양상은 거인설화의 주된 전승소로 파악된 바 있는 힘내기, 대식, 배설의 세 모티프를 중심으로 하겠다. 보조자료로서, 관계되는 서사무가와 문헌설화도 활용하기로 한다.

이때 구전신화와 서사무가는 상호 영향관계에 있으므로 그 先後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두 장르에 나타나는 모티프의 변모양상을 요소별로 나누어, 비교적 우선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먼저 고찰하는 방법을 택한다. 따라서 본장의 일반적인 고찰 순서는 구전거인설화, 서사무가-문헌설화-구전거인형설화<sup>61)</sup>로 진행될 것이다.

### 1. 힘내기모티프

대결형 거인설화의 중심인 힘내기모티프는 거인형설화에서는 오늬힘내기와 제주도 장수할망, 그리고 방귀쟁이들의 방귀시합과 같은 유형의 설화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밖에 여러 서사무가와 국조신화 등에서도 발견되는 보편적인 모티프이다.

주체와 형태, 결과에 따라 힘내모티프의 변모양상과 의미를 살펴 보기로 한다.

힘내기모티프가 들어 있는 서사무가<sup>62)</sup>에서 힘내기의 주체는 미륵과 석가, 또는 대별

61) 구전거인설화와 구전거인형설화는 서사무가와 문헌설화가 보조자료로 등장하고 있는데 따라 각 자료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붙인 명칭이다.

62) 손진태(1981), “창세가”, 『조선신가유편』, 『손진태선생전집』5, 태학사

현용준(1980), “베포도업침, 천지왕본풀이”, 『제주도 무속자료 사전』, 신구문화사

왕과 소별왕이다. 미륵과 석가는 무속의 불교적 윤색과 더불어 생긴 명칭의 차용현상이다.<sup>63)</sup> 이들은 각각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는 神이다. 이 가운데 미륵은 인간세상을 창조한 창세신이며 그는 외모와 행위에 있어서 모두 거인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sup>64)</sup>

힘내기를 제안하는 쪽은 석가(소별왕)이다. 석가는 미륵의 동생이며, 저승을 다스리고 있고, 또한 창세신도 아니라는 여러가지 면에서 미륵보다 열등한 존재이다. 그러나 그는 미륵이 다스리는 이승을 탐내 미륵에게 도전한다.

거인설화에서 힘내기의 주체는 神人에서 장수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주체의 원형적 모습은 역시 천지를 창조한 신인이다. 그는 거인설화의 주인공이니 만큼 외모와 행위에 있어서 물론 거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창세신인 설문대할망이니 마고할미 등은 힘내기 이전에 이미 열등한 존재로 결정되어 있다. 같은 창세신인 미륵보다 오히려 석가와 같은 입장에 놓여 있는 바, 거인은 上位神이나 기존의 세력자에게 대항하는 도전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거인승배의 퇴조와 관련이 있다.

한편 거인이 대개 여성으로 형상화되어 있고 상대방이 남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남녀간의 대립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모계사회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남아 있지 않지만, 남권과 여권이 대립, 교체되던 시기의 신화로 추정할 수 있겠다.

문헌설화의 경우 힘내기모티프는 건국시조 및 왕위와 관련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63) 천혜숙(1987), p. 87

64) 창세가의 미륵이 땅의 네 귀에 구리 기둥을 세워 천지를 분리시키고, 두 개씩 있었던 해와 달을 하나씩 떼어 내어 별로 만들었다는 창세의 위업과 미륵이 옷을 만들어 입는 과정의 묘사로 부터 미륵이 외모와 행위 면에서 모두 거인적인 특성을 구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힘내기의 주체는 탈해와 수로, 탈해와 노래왕, 탈해와 호공, 주몽과 송양왕<sup>65)</sup> 등이 있다. 서사무가와 거인설화에서 힘내기의 주체가 태초의 신이었던 것과 달리 문헌설화에는 왕이나 귀족과 같은 역사시대의 治者계층이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외모와 행위는 역사시대의 합리적인 인식에 따라 다소 현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주체의 외모는 여전히 내재적인 힘의 발현으로 상징되었음이 나타난다. 가락국기에 기록된, 즉 수로의 입장에서 기록된 수로와 탈해의 힘내기의 경우, 송자인 수로는 9척장신의 흰칠한 용모로 그려져 있는데 비해 패자인 탈해는 3척 단신에 머리둘레가 1척이나 되는 작고 기이한 모습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신라쪽 기록에 의하면 탈해는 9척7촌의 신장에 3척2촌의 두골을 지닌 천하의 力士로 표현되어 있다. 왕의 큰 키를 힘의 상징으로 생각했던 증거이다. 거인설화에 비해 체구가 현실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인설화의 영향이 남아 있다. 그리고 이들은 역사시대의 인물들이기는 하지만 전국신화의 주인공들이므로 역시 신화적인 존재들이다.

구전거인형설화 가운데 오누힘내기 설화의 경우 힘내기의 주체는 오라비와 누이가 대표적이고, 제주도 장수할망 설화의 경우 할망과 마을 청년들이며, 방귀쟁이들의 방귀 시험 설화에서는 방귀쟁이 남자와 방귀쟁이 여자이다. 즉 힘내기의 주체는 남녀로 나타나고 있다. 남녀의 대립은 거인설화에서와 마찬가지로 남편과 여권이 대립, 교체되던 시기의 신화적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을 거인설화의 주체인 거인과 비교해 보면, 오누이는 외모와 행위면에서 모두 거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제주도 장수할망과 마을 청년들이나, 방귀쟁이 남녀는 외모에 있어서는 보통사람과 구별되지 않으며 행위만 거인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65) 一然, 三國遺事, 紀異 권2, 駕洛國記

紀異 권1, 弩禮王

紀異 권1, 脫解王

李圭報, 東國李相國集, 東明王篇

각 장르별로 힘내기모티프의 주체를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서사무가와 구전거인설화 그리고 문헌설화의 경우 주체는 신인으로 나타나며, 구전거인형설화의 경우에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신화적인 인물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사무가와 구전거인설화에서의 거인은, 문헌설화의 경우 왕의 권능과 위업을 상징하는 한 요소로서 약간의 흔적을 남기고 있으며, 구전거인형설화에서는 보통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체구로 왜소화되는 변모를 보인다. 이것은 현실적인 합리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설화의 전승이 외모보다는 행위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짐을 뜻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제 힘내기의 형태에 나타나는 변모를 살펴 보기로 하자.

구전거인설화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힘내기의 형태 가운데 가장 원형적이면서 보편적인 것은 산만들기와 산이동이다. 산만들기와 산이동이 힘내기의 한 형태로 등장하는 것은 거인설화가 천지창조신화이기 때문이다. 이때 산만들기와 산이동은 행위자에 의한 질서의 구축을 뜻한다. 즉 천지창조의 주체를 결정하는 사건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거인의 거구와 거구에서 비롯되는 힘에 의해 이루어진다. 치마나 멜빵, 막대기, 또는 회초리 등과 같은 도구도 거인의 신체에 의존하여 사용되고 있다. 즉 거인설화에 나타나는 힘내기의 형태는 육체적인 힘의 직접발휘이다.

서사무가의 힘내기 형태는 <창세가>의 경우, 동해 가운데 병 넣어 달아올리기, 성천강의 얼음얼우기, 잠자면서 무릎에 꽃피우기이며, <천지왕 본풀이>의 경우, 두 번의 수수께끼 문답과 잠자면서 무릎에 꽃피우기로 되어 있다. 힘내기의 형태는 이성과 지혜에 의한 것이다.

문헌설화에 나타나는 힘내기는 탈해와 수로의 술법겨루기, 탈해와 노래왕의 잇금겨루기, 탈해와 호공의 지략겨루기, 주몽과 송양왕의 활쏘기, 지략, 천우신조겨루기 등의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다. 탈해와 수로가 겨룬 술법은 변신술이다. 탈해가 매로 변하면 수로는 독수리로, 탈해가 참새로 변하면 수로는 새매로 변하고 있는데, 다만 변신하고만 있을 뿐 오늬힘내기 설화의 경우 투쟁은 없다. 탈해와 노래왕이 떡을 물어 잇금을 겨루

는 것은 이(齒)가 많은 사람이 德이 많다는 데 따른 것이다. 즉 잇금겨루기는 덕의 겨루기이다. 탈해는 호공의 집터를 빼앗기 위해 숫돌과 숫을 그 집 옆에 묻어 놓고 대장장이였던 자신의 조상들이 살던 곳이라고 거짓으로 증거한다. 주몽은 송양왕의 궁터를 빼앗기 위해서 활쏘기에 응하고 왕실의 鼓角과 기둥을 오래된 것처럼 꾸미며, 하늘에 빌어 비류국의 왕도를 물바다로 만든다.

주몽과 송양왕의 활쏘기와 같은 육체적인 힘의 직접발휘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문헌설화의 힘내기 형태는 대체적으로 이성과 지혜에 의한 것이다.

구전거인형설화인 오뇌힘내기 설화의 힘내기는 오라비가 나막신을 신고 서울을 다녀 오는 동안, 누이는 성을 쌓는 것이다. 힘내기의 형태가 인공적인 토목공사로 축소되어 있기는 하지만, 역시 산만들기나 산이동과 같이 질서의 구축행위로 볼 수 있다. 제주도 장수할망 설화에서는 들음돌들기이다. 방귀쟁이들의 방귀시합에서는 방귀로 절구통 날려 상대방 맞추기이다. 힘내기의 형태는 육체적인 힘의 직접발휘이다.

이상에서 각 장르에 나타나는 힘내기의 형태를 살펴 보았다. 구전거인설화의 육체적인 힘의 직접발휘 형태가 서사무가에서 이성과 지혜의 형태로 변모하고 있는 것은 武보다 文을 숭상하게 된 의식의 변화<sup>66)</sup>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헌설화의 경우도 비슷하다. 문헌설화의 힘내기는 육체와 정신,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육체적인 힘내기는 활을 잘 쏘는 것으로 유명했던 주몽에 한하고 있다. 그것도 힘만으로는 되지 않으며 기술이 요구되는 활쏘기로 축소되어 있다. 반면, 정신적인 힘내기인 지략은 자주 등장하는 내기의 형태이다. 문헌설화의 두 형태는 인간의 가치가 힘과 지혜로 양분되었으며, 힘보다는 지혜를 가치로운 것으로 생각하는, 즉 武보다 文을 숭상하게 된 의식의 변화를 보여준다.<sup>67)</sup>

66) 서대석(1980), “창세시조신화의 의미와 변이” 『구비문학』 4, p. 22

67)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등에 나와 있는 왕에 대한 묘사에는 이 두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 이상적인 왕의 모습은 外的으로는 크고, 內的으로는 지혜로워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두 가치 가운데 직접적인 발휘가 요구되었던 것은 內的인 지혜이며, 육체적인 힘은 다만 장대한

구전거인형설화의 힘내기 형태는 육체적인 힘의 직접발휘라는 점에서 구전거인설화와 가장 유사하다. 특히 오늬힘내기 설화의 힘내기 형태인 성쌓기는 거인설화의 산천형성의 변이형에도 나타나는 것으로서, 일의 형태가 축소되어 있지만, 그 성격면에서는 산만들기나 산이동과 다를 바가 없다. 힘내기의 주체나 형태가 이처럼 거인설화와 유사한 것은 이 설화의 古態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도 장수할망 설화의 들음돌들기도 육체적인 힘의 직접적인 발휘이다. 들음돌들기는 산천형성이나 성쌓기에 비해 매우 축소된 형태이다 이것은 이 유형설화가 지금부터 백여년전을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sup>68)</sup>과 관계가 있다. 즉 설화가 만들어지고 전승된 것이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므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형태로 힘내기모티프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유형 설화의 특기할 만한 변모는 힘내기모티프의 民俗化이다. 들음돌이 마을마다 놓여 있어서 각 마을에서 가장 힘센 자가 누구인지를 가리고, 들음돌의 크기가 그 마을의 힘을 상징한다고 본 데는 힘내기모티프의 신화적 편린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되어 남아 있다. 방귀쟁이들의 방귀시합도 역시 육체적인 힘의 직접적인 발휘이다. 힘

---

외모라는 상징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것은 장수나 영웅이 곧 治者였던 시대가 지나고 이제 국가의 체제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되던 시대상황의 반영으로도 볼 수 있다. 왕에 대한 묘사를 몇 개만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南解次次雄이 즉위하니...몸이 長大하고 性이 沈厚하고 智略이 많았으며...
- 脫解尼師今이...커지매 신장이 九尺이나 되고 인물이 동탕하고 지식이 남에게 뛰어났다.
- 助墳尼師今이 즉위하니...왕은 키가 크고 풍채가 아름답고 일에 대하여는 밝게 裁斷하므로, 국민이 그를 외경하였다.
- 實聖尼師今이 즉위하니...實聖은 신장이 七尺五寸이나 되고 사람됨이 明哲하여 遠識이 있는 지라, 柰勿이 돌아가고 그의 아들이 어리므로 國人이 實聖을 세워 王位를 잇게 하였다. 김부식 『三國史記』, 이병도역(1978), 을유문화사. p. 5. p. 10. p. 28. p. 40

68) “약 1백 년 전, 심돌 강씨할망이 같은 마을 부씨택에 시집을 왔다.”

“약 150년 전 구좌면 세화리의 문만호가 구좌면 김녕리 색시를 며느리로 데려왔다. ...”

“백여 년 전, 남원면 태흥리 경주김씨 택에 새며느리를 데려왔다. ...”

내기는 대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힘내기의 양상을 즐기는 쪽으로 변모되어 있다. 힘내기모티프의 회화화이다. 이것은 방귀라는 배설물이 힘으로 사용되는 것도 그 이유가 되지만, 소화라는 장르의 특성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힘내기의 결과 서사무가에서는 인세통치자가 결정된다. 창세신이며 이승의 지배자였던 미륵은 이승을 탐한 석가의 속임수에 의해 부당하게 패배하고 인세통치권은 석가에게 넘어간다. 구전거인설화의 경우에는 인세통치자가 재확인된다. 이미 열등한 위치에 놓여 있던 거인은 기득권자에게 도전해보지만, 보다 힘이 센 신화적 존재들에게 패배하고 질서의 주체화되기에서 다시 한 번 소외된다. 이때 거인의 패배는 서사무가의 미륵의 패배와는 성격 차이가 있다. 거인도 힘이 세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신화적 존재에게는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문헌설화에서는 힘내기의 결과 왕의 권능과 위엄이 확인되거나 왕위계승자가 확정된다. 수로왕은 탈해와의 힘내기에서 승리하므로써 질서화의 진정한 주체임을 확인받는다. 노례왕과 탈해 그리고 주몽은 각각 탈해, 호공, 송양왕을 이긴 다음 즉위하거나 혼인한 뒤 즉위하며, 또는 제도정비에 들어 가고 있다.<sup>69)</sup> 또한 문헌설화에서는 전적으로 승자 중심의 기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전거인형설화인 오누힘내기 설화에서는 힘내기의 결과 질서의 주체가 결정된다. 실제로 힘이 센 쪽은 누이이지만, 누이는 아들이 이기기를 바라는 어미의 속임수에 의해 부당하게 패배하고 있다. 제주도 장수할망 설화에서는 힘내기가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힘내기의 결과 마을에서 가장 힘센 사람은 장수할망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그는 마을의 일인자로 부상하기는 커녕, 오히려 시아버지나 스스로에 의해 억압당하며, 그의 힘은 질서의 주체가 되는데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 방귀쟁이들의 방귀시합 설화에서 힘내기는 대개 무승부로 끝나고 있다. 어느 한 쪽이 패배하

---

69) 천혜숙(1987), pp. 88~93 참고

여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매우 드문 편이다.

힘내기의 결과 각 장르에서는 질서의 주체가 결정되고 있다. 힘내기의 판도는 인간 세상에서부터 한 섬의 작은 마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규모의 크기에 상관없이 이들은 질서의 상징이다. 문헌신화에서 구비전설로 갈수록 勝者 중심에서 敗者 중심으로 의미의 지향이 변모하고 있음<sup>70)</sup>은 사실이지만 특이한 것은 구전거인설화와 구전거인형설화인 방귀쟁이들의 방귀시합 설화이다.

문헌설화는 신성왕권을 강화하고 부각하려는 메카니즘에 의해 신화를 철저히 승자-곧 신화적 주체-중심의 전승으로 만들고 있다. 그에 비해 서사무가와 오누힘내기 설화에서는 패자가 부당하게 패배했음을 항변하기 위해 힘내기의 상황 묘사에 치중한다. 이것은 무가와 전설의 향유층이 패자인 미륵과 누이를 자기동일시하는 데서 비롯된다.<sup>71)</sup> 제주도 장수할망 설화는 기본적으로 서사무가와 전설의 인식을 계승하고 있으므로 패자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설화 전반에 여성이 질서의 주체화에 소외된 시대상황이 이미 반영되어 있고, 패배의 결과가 죽음에 이르지도 않고 있으므로 오누힘내기 등에 비해서 항변의 강도가 약하다.

그런데 구전거인설화에서는 패자인 거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거인의 패배는 부당한 것으로 항변되지 않고,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서사무가나 전설과 달리 승자의 승리도 인정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구전거인설화가 원래는 천지창조신화로 전승되었으나 신성성을 잃고 구전되어 오는 과정에서 파편신화적인 전설과 민담으로 변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거인설화의 힘내기모티프에는 바로 이와 같은 거인설화의 전승양상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회적 성격의 천지창조가 잊혀지고 거인승배가 쇠퇴하면서 하위신으로 밀려난 거인의 입장은 설화에서 전설적 자아로 형상화된다. 이미 세계는 거인이 아닌 다른 신화

---

70) 앞글, p. 96

71) 앞글, p. 97, p. 112 참고

적 존재에 의해 재편성되어 있으며, 전승집단도 다른 신화적 존재를 받아 들이고 있다. 즉 구전거인설화에 나타나는 승자와 패자에 대한 시각은 거인신앙의 퇴조단계가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구전거인형설화인 방귀쟁이들의 방귀시합 설화에서는 시합의 결과가 거의 무승부로 처리되고 있으며, 승부가 결정나는 경우에도 승자 중심이니 패자 중심이니 하는 어느 한 편에 대한 지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설화의 중심은 힘내기모티프로 이루어져 있지만 질서의 주체를 결정하려는 힘내기모티프의 원래적 의도는 사라지고 힘내기 자체를 즐기는 방향으로 전승되고 있다. 이것은 이 설화의 향유지향적 인식<sup>72)</sup>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즉 주제는 약화되고 이야기 자체의 흥미가 부각되고 있다.

## 2. 대식모티프

배설의 결과 산천이 형성된 거인설화와 사냥형 거인설화에서 원인의 역할을 담당했던 대식모티프는 서사무가나 문헌설화의 경우 그 편린이 보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구전거인형설화인 제주도 밥장수 설화와 호랑이 잡은 밥장수 설화에서는 중심이 되는 모티프로 기능하고 있다.

대식모티프의 변모양상과 의미를 앞에서와 같이 주제, 형태, 결과에 따라 살펴 보기로 하겠다.

구전거인설화에서 대식의 주체는 장길손과 설문대할망 또는 설문대부부이다. 이들이 대식을 하는 것은 엄청난 체구를 가진 거인이기 때문이다.

서사무가 가운데 대식모티프가 나타나는 것은 〈창세가〉와 제주도의 당신 본풀이 가

---

72) 앞글, p. 32에서 각 장르의 세계인식적 원리를 정리하면서 민담에는 향유지향적인 인식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운데 소천국의 말쑤 아들에 관한 몇 편의 본풀이<sup>73)</sup>를 들 수 있다.

〈창세가〉에서 대식의 주체는 미륵이다. 미륵은 힘내기모티프에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거인이다. 그러므로 미륵 역시 장길손 등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체구로 인해 대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창세가〉에서는 미륵이 대식하는 이유를 生食에 두고 있다. 미륵이 낱알을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은 것은 불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세가〉에서 대식의 주체는 거인이며, 불을 가지지 않은 자로 정리된다.

당신 본풀이에서 대식의 주체는 소천국의 말쑤 아들이다. 그는 거인이라기 보다는 장수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묘사로 보아 그의 체구는 현실적으로 합리화된 거구임을 짐작할 수 있다.<sup>74)</sup>

대식모티프가 나타나는 문헌설화로는 太宗 春秋公의 記事<sup>75)</sup>가 있다. 이것은 대식모티프의 고태성을 입증하며 대식모티프의 또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

대식의 주체인 태종 춘추공은 당나라 임금이 그의 풍채를 보고 칭찬, 신성한 사람이라고 하며 侍衛로 삼으려 했다는 기록<sup>76)</sup>으로 미루어 볼 때 그의 체구가 보통사람보다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구전거인형설화인 제주도 밥장수 설화에서 대식의 주체는 막산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종신분의 장수이다. 그는 구척장신에 부리부리한 눈을 가졌으며 기상이 돋보인다.<sup>77)</sup>

73) 현용준(1980), “천주포 마누라본”, “케네깃당”, “신평 하천 본향당”, pp. 591~596, pp. 836~649, pp. 693~698.

74) 앞책, “신평 하천 본향당” p. 659. “...올고 보니 봉에눈(鳳眼)을 부릅뜨고 삼각산을 거슬리고 천하맹장(天下猛將)이 앉아서니... 서른 여덟(三十八) 빛바데(잇바디)...”

75) 일연, 「삼국유사」 이민수역(1986), 권제1 太宗春秋公 p. 98

76) 일연, 앞책 p. 98

77) 제주도 문화공보담당관실(1985), 「제주도 전설지」, “막산이(Ⅰ)”, p. 349

역시 구전거인형설화인 호랑이 잡은 밥장수 설화에서 대식의 주체는 밥장군, 밥포수, 식대장군 등으로 불리우는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다. 그는 밥을 많이 먹는 만큼 체구도 크다. 그러나 외모와는 달리 무력하다. 대식은 힘과 비범함의 상징이었으나, 호랑이 잡은 밥장수에 이르러 그 비례관계가 무너지고 있다.

구전거인설화와 서사무가에서 대식의 주체였던 거인은 문헌설화의 경우 보통사람과 다를 바가 없으며, 구전거인형설화에서는 보통사람에 비해 큰 체구이다. 보통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던 거인의 체구가 보통사람과 비교하여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왜소해져 있다. 체구의 변화는 현실적인 합리화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화소의 수용 또는 계승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모할 수 밖에 없음은 힘내기모티프에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다. 또, 대식가들은 각 장르별로 신에서 왕, 장수 또는 반장수<sup>78)</sup>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섬들이 말들이 식사를 하는 이들의 대식은 결핍에 의해 더 강조된다. 태종 김춘추의 경우 대식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외의 대식가들에게 대식은 해결이 쉽지 않은 큰 문제이다. 각 장르에 나타나는 대식의 형태를 살펴 보기로 한다.

구전거인설화의 장길손은 기아상태로 방황하다가 남쪽 곡창지대의 농민들에게 후대를 받고 일시적이거나 결핍을 해소한다. 그러나 그의거구에 해가 가려 흉년이 든 이유로 그는 다시 결핍에 처하게 된다. 설문대할망이나 설문대부부 역시 식량의 결핍에 시달린다.

용왕의 세째 사위가 되므로써 용궁에서 대식을 할 수 있었던 당신은 그의 대식에 놀란 용왕에게 축출되어 다시 결핍에 처한다.

창세가에서는 대식으로 인해 결핍상황이 닥칠 것이 문제시되고 있다.

78) 호랑이 잡은 밥장수는 외면적으로 볼 때 체구가 크고 밥도 많이 먹으므로 힘깨나 쓰는 장수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그는 과장해서 말하면 밥 한 알, 돈 한 냥도 못 드는 무력자이다. 따라서 받은 장수이고 장수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半將帥라고 칭했다.

신이 대식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핍에 시달린 것은 신성성의 훼손을 뜻한다. 따라서 대식의 형태에는 거인설화의 신화적 성격이 약화 또는 상실되어 가는 단계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사무가인 <창세가>에는 아직 신의 결핍이 나타나지 않고 조만간 닥칠 문제상황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미륵은 신성성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다.

문헌설화의 김춘추는 백제를 멸하기 전에는 하루에 쌀 삼斗와 꿩 아홉마리를 먹었다고 한다. 김춘추의 대식은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백제를 멸하는 것과 긴밀한 관계를 지닌다. 즉 김춘추의 대식은 상당히 의도적인 성격이 짙어 보인다.

구전거인형설화의 막산이는 항상 배를 채우지 못하고 사는데, 그의 대식을 부담스러워한 주인이 그를 축출하므로써 그는 더한 결핍에 처하게 된다. 막산이는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모든 것을 주인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막산이의 대식을 감당할 만한 주인이 없으므로 그는 여기저기를 전전하게 되며, 이것은 장길손의 유리결식과도 같은 성격을 띤다.

호랑이 잡은 밥장수는 가족들에게 전적으로 부양을 받다가 그들에게 버림받으므로써 결핍에 처하게 된다. 밥을 많이 먹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그에게 집으로부터의 축출은 사형선고와도 같은 것이다.

대식가들의 대식 형태가 대개 결핍으로 나타남을 보았다. 이제 그 결과가 각 장르별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기로 한다.

구전거인설화에서 또 다시 유리결식하게된 장길손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흙과 나무, 돌, 바닷물 등을 먹고 배탈을 일으켰다가 먹은 것들을 모두 배설하여 새로운 지형을 형성한다. 거인의 행위에는 자연과 인간의 동질적인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음식의 결핍이 해소되지 못하고 파행적인 결구로 끝나고 있는 것은 거인송배의 퇴조에 다름아니다. 같은 구전거인설화이지만 설문대할망이나 설문대부부가 주체인 경우 음식의 결핍은 거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해소된다. 특히 설문대할망과 하르방이 부부로 등장하는 설화에서 그들은 성기와 배설물을 이용하여 짐승과 물고기를 잡아

먹는다. 거인의 대식 문제는 봉제사 차원에서 벗어나 개인 차원으로 전이되는 변모를 보인다.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대식하는 신은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마을사람들에게 凶驗을 주어서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 때에 따라 奉祭하도록 하여 목숨을 이어 나간다.<sup>79)</sup> 신성성의 약화로 인해 봉제받지 못하는 신으로 전락한 장길손과 달리, 배고픈 당신들은 봉제를 받기 위해 스스로 좌정하는 적극성을 보인다.

〈창세가〉의 미륵은 대식으로 인해 예상되는 결핍을 물과 불의 근본을 찾음으로써 해결한다. 즉 〈창세가〉에는 生食에서 火食으로 넘어가는 문화의 한 단계가 반영되어 있다. 결핍이 이와 같이 문화의 변모와 관련하여 해결되고 있는 것은 대식모티프가 〈창세가〉에서 변된 때문으로 보인다.

문헌설화에서 태종의 대식은 결핍과는 관계가 없으며, 그의 대식은 백제와의 전쟁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삼국 사화에 아홉마리의 꿩을 먹던 그가 한 끼를 줄여 식사를 한 것은 백제를 멸하고 난 뒤의 일이다. 이에 따르면 백제를 치기전의 대식은 전쟁을 치르기 위한 태종 개인의 준비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왕의 대식 자체만으로 백제를 멸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태종의 대식의 결과는 전쟁에서의 승리와 무관하지 않다. 왕의 대식은 곧 위력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구전거인형설화인 제주도 밥장수 설화에서 대식가인 막산이는 대식의 결과 거듭되는 축출 끝에 이 사회에서의 마지막 축출인 죽음에 이르고 있다. 그의 대식은 미천한 장수의 위력을 더욱 강조하는 비범성의 징표이다. 미천한 장수의 힘은 역사창조에 쓰이지 못하며,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 되는데, 밥장수의 신분이 종이고 거기에다가 대식가이며, 거주공간이 제주도라는 점으로 한정되어 있음은 소외된 계급의 비범성을 더욱 부정하는 요인이다.

---

79) 현길언(1981), p. 187

이제까지 각 장르에서의 대식이 비법성의 징표였던 것과 달리 호랑이 잡은 밥장수의 대식은 집안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뿐인 백해무익한 것이다. 따라서 밥장수는 대식의 결과 집에서 축출을 당하는데 이것 역시 장길손이나 막산이의 경우와 달리 결핍과 죽음에 이르는 축출이 아니라 행운의 계기가 되고 있다. 집안에 누워서 해주는 밥만 먹고 있던 밥장수는, 축출이후 무력하지만 생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한다. 그의 일련의 행위에는 인간행위에 대한 구김살 없는 신뢰와 낙관이 나타나 있다. 호랑이 잡은 밥장수는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도 좌절과 패배를 모르는 민담의 주인공의 모습이다.<sup>80)</sup>

우연히 호랑이를 잡은 밥장수는 결국 자신의 대식 문제를 자신이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부자가 되어 평생을 배불리 먹고 살게 된다.

### 3. 배설모티프

일부 산천형성형과 사냥형 거인설화에서 대식모티프와 인과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설모티프는 거인형설화에서는 방귀쟁이 며느리 설화 등에 나타나며 문헌설화에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흥미있는 모티프이다.

힘내기 및 대식모티프에서 시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각 장르에 나타나는 배설모티프의 변모양상과 의미를 주체, 형태, 결과별로 살펴 보기로 한다.

구전거인설화에서 배설의 주체는 대식의 주체이기도 한 장길손, 설문대할망, 설문대하르방과 마고할미 등이다. 이들은 모두 거대한 체구를 가진 거인이다.

배설모티프가 나타나는 문헌설화는 네 편이나 되어 복잡하므로 논의의 편의를 위해 연대순에 따라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

80) 장덕순외(1971), p. 71 참고

- ①文姬 「文姬之姊寶姬夢登西岳捨滿<sup>81)</sup>京城」  
「其姊夢登西兄山頂座旋流偏國內」<sup>82)</sup>
- ②寶育 「嘗夢登鵠嶺向南便旋・溢三韓山川  
變成銀海」<sup>83)</sup>
- ③辰義 「其姊夢登五冠山頂而旋流溢天下」<sup>84)</sup>
- ④景宗妃「皇甫氏出居私第嘗夢登鵠嶺旋流溢國中  
盡盛銀海卜之曰生子則王有一國后曰我既寡  
何以生子宗室郁太祖第八子也」<sup>85)</sup>

문희는 김유신의 끝누이이며 신라 제29대 왕인 태종 춘추공의 왕비이다. 보육은 고려 태조 왕건의 先代祖이다. 진의는 보육의 두 딸 가운데 끝딸이며, 역시 고려 태조 왕건의 선대조이다. 경종비는 고려 경종의 왕비이다. 문헌설화의 배설의 주체는 후에 왕비가 되는 처녀, 과부인 왕비, 왕족에 편입되는 남성 등으로 모두 왕족이라는 공통점을 지니며, 문희, 보육, 진의는 지혜롭고 식견이 있는 인물들이다. 또 보육을 제외한 세 사람이 처녀 혹은 과부로서, 배우자가 결핍된 여성이라는 점도 공통된다.

구전거인형설화인 방귀쟁이 며느리 설화에서 배설의 주체는 제목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방귀쟁이 며느리이다. 그는 외면적으로는 보통사람이지만 방귀의 위력만큼은 거인적인 인물이다.

81) 三國遺事 卷一 紀異篇, 太宗春秋公

82) 三國史紀 卷八 新羅本記, 文武王 上

83) 高麗史 卷一, 高麗世界

84) 高麗史 卷一, 高麗世界

85) 東國輿地勝覽 卷三十一 泗川 古跡 陵草峰條

구전거인설화의 거인이 신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은 이미 밝혀진 바와 같다. 따라서 배설의 주체는 신인에서 이인(異人)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구전거인설화 주체의 거대한 체구는 전혀 계승되지 않고 있다. 문헌설화의 주체나 구전거인형설화의 주체는 내면적으로는 힘을 지니고 있으나 외면적으로는 범인의 모습이다. 신화소였던 배설모티프가 여러 장르로 수용되면서 인물의 성격이 점차 축소, 합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구전거인설화에서 남녀 거인이 각기 절반의 비율로 되어 있던 주체의性は 문헌설화와 구전거인형설화 쪽으로 올수록(여성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배설의 결과와 관계되는 변모로 생각된다. 배설의 결과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배설의 형태는 구전거인설화의 경우 배설물 자체가 매우 다양하다. 특히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흙, 나무, 돌, 바닷물 등을 먹고 배탈이 난 장길손의 배설은 신체의 모든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배설물은 대변과 소변은 물론, 토사물과 눈물, 한숨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설문대할망과 마고할미의 배설은 대체로 대변과 소변 정도이다. 설문대하르방의 배설은 짐승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거인의 배설은 거대한 체구, 대식과 관련하여 볼 때 엄청난 양이었으리라는 것이 추측 가능한데, 사냥형 거인설화, 즉 설문대하르방의 짐승잡기에 배설물이 이용된 것은 배설물의 양에서 비롯되는 위력을 이용한 것이다.

네 편의 문헌설화에 나타나는 배설의 형태는 각편별로 요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배설의 주체가 꿈속에 산위에 올라가 오줌을 누었더니 온 천하가 물에 잠긴 것으로 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배설의 행위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꿈속의 일로 처리되고 있는 점이다.

구전거인형설화인 방귀쟁이 며느리 설화에서는 배설의 형태가 방귀뀌기이다. 시집살이 삼화가 들어 있는 제1·2·3유형에서는 보통 방귀가 아닌 까닭에 참고 있던 방귀를 피자 집이 들썩거리고 시댁식구들이 날아가 버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며느리는 방귀의 위력이 지나치다 하여 소박을 맞는데, 친정으로 돌아 가는 길에서 배나무, 장삿군등을 만나 다시 한번 방귀의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제4유형은 시집살이

삼화가 없으므로 시집에서 방귀뀌기가 없고 방귀뀌기가 내기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제1유형부터 4유형의 방귀쟁이 며느리 설화에서 방귀는 위력적인 것에서 비위력적인 형태로 변하고 있다.

이상에서 각 장르의 배설형태를 살펴 보았다. 배설의 형태는 먼저 배설물의 종류에서부터 차이를 보인다. 구전거인설화에서 대변과 소변을 중심으로 다양한 배설이 나타나는데 비해 문헌설화에서는 소변만이 나오고 구전거인형설화에서는 방귀로 되어 있다. 이것은 배설모티프를 수용한 각 장르의 의도와 관계가 있는 것인 바 이에 대해서는 배설의 결과 부분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하겠다.

구전거인설화와 문헌설화에서의 배설은 대량이라는 점에서 위력적인 것이다. 그러나 구전거인형설화인 방귀쟁이 며느리에서 며느리의 방귀는 점차 비위력적인 쪽으로 전승되고 있다. 처음 며느리의 방귀는 집과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위력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제2유형에 이르러 배를 따는 정도의 위력으로 바뀌고 제3유형에서는 위력방귀가 반, 계속 뀌어 댈 수 있는 비위력적인 방귀가 반이며, 제4유형에서 위력방귀는 완전히 비위력적인 방귀, 회화화된 방귀로 바뀌고 있다. 방귀의 형태가 이처럼 변모하고 있는 것은 현실 가능한 성격의 배설로 바뀌는 것인데, 변모형태는 소화 장르의 향유지향적인 의도를 더욱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전거인설화와 구전거인형설화에서 배설의 형태가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 문헌설화에서는 배설이 모두 꿈속의 일로 처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문헌설화의 향유층이 지닌 현실적인 사고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배설모티프가 상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서 구전설화와 문헌설화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제 배설의 결과가 각 장르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변모의 의미는 무엇인지 총괄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구전거인설화에서 장길손과 설문대할망, 마고할미 등은 배설의 결과 산천을 형성한다. 장길손이 비료나 해주기 위해 눈 오줌은 양이 너무 많았던 까닭에 홍수와 민족의 이동까지 초래하는 불상사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배설물의 형태에 따라 대변은 산, 섬,

육지가 되고 소변은 바다와 강이 된다. 거인설화에 여러 배설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산천의 다양한 형태를 여러 배설물로 설명하고자 한 때문이다. 설망대하르방은 한라산 꼭대기에서 배설물로 짐승을 몰아 사냥을 하므로써 음식의 결핍을 해소한다.

각 문헌설화에 나타나는 배설모티프의 양상은 서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가장 먼저 기재되어 있는 문희의 旋流夢<sup>86)</sup> 결과를 중심으로 다른 문헌설화도 보기로 한다. 문희의 선유몽은 그가 직접 꾸 것이라 꿈의 의미를 모르는 언니에게서 산 것이다. 고려 태조의 선대조가 되는 진의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유몽의 주체가 되고 있다. 남의 꿈을 듣고 그것을 사서 자기 운명으로 만들고 있는 문희와 진의는 지감 능력을 지닌 비범한 인물들이다. 선유몽을 꾸었거나 산 사람들은 그 뒤 신분에 변화가 일어난다. 문희는 장차 왕이 될 김춘추를 만나고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여 결혼하고 왕비가 되며 아들을 낳고 있다. 진의는 아직 태자의 몸이던 당나라 숙종을 만나 역시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여 고려 태조의 조부가 될 작제전을 낳는다. 진의의 부친인 보육은 선유몽의 결과 잠저시에 있는 당나라 숙종이 귀한 신분의 사람임을 깨닫고 딸과 결연을 맺게 하는 지인지감을 발휘한다.<sup>87)</sup> 경종비는 선유몽을 꾸 뒤 왕을 잃은 과부의 몸이지만 安宗과 사통하여 후에 현종이 되는 아들을 낳는다. 문헌설화의 배설물이 특별히 소변인 것은 배설의 결과가 왕자의 탄생으로 연결되고 있는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문헌설화에서는 배설물 가운데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물과 같은 소변을 배설의 형태로 선택한 것이다.

86) 높은 곳에 올라서 소변을 보았더니, 그 물이 나라에, 혹은 천하에 彌滿한 꿈을 지칭하여 장덕순이 붙인 용어이다. 장덕순(1970),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출판부.

87) 문헌설화에 나타나는 배설모티프의 수용양상과 의미를 볼때, 남자인 보육이 주체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리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 태조 왕건의 고려창건을 합리화하고 신성왕권을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이지만, 前代의 신화를 모두 끌어 모아 국조신화를 조합하므로써 오히려 고려신화의 빈약한 형편이 드러나고 있다.

선유몽을 낳은 세 여자들이 王者를 낳는 것은 모두 처녀 또는 과부의 상태에서 정식혼을 거치지 않고 야합에 의한 것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따라서 문헌설화의 배설모티프는 왕족이 되는 인물들의 야합과, 그 결과 태어난 왕자의 출생을 신성시하므로써 정당한 것으로 합리화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구전거인형설화에서 방귀쟁이 며느리는 일차적으로 시집에서 방귀를 뀌어 시집식구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그리고 그 결과 제2유형에서는 소박을 당해 친정으로 돌아가던 길에 방귀로 배를 따서 시아버지에게 드리고 시집으로 복귀하며, 제3유형에서는 내기시합에서 방귀로 이겨 장삿군의 짐을 모두 빼앗아 복귀한다. 제4유형에서는 내기에서 이겨 목수의 새 집과 장삿군의 재물을 뺏는다. 이때 배설물의 형태가 방귀인 것은 이 설화의 소화적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배설의 결과 구전거인설화에서는 산천을 형성하고 짐승을 사냥하며, 문헌설화에서는 왕자를 낳고, 구전거인형설화에서는 시집식구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재물을 획득하는 생산성을 발휘하고 있다. 배설모티프의 이상과 같은 생산성은 여성의 출산력<sup>88)</sup>과 합치되는 성격으로서, 구전거인설화에서 반반이던 性比가 문헌설화와 구전거인형설화에서 여성 중심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르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생산성의 변모양상은 세계관의 변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전거인설화에서 거인배설의 결과 산천이 형성되는 설화에는 자연과 인간이 분화되기 이전의 경험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거인배설의 결과는 죽어서 그 시체가 우주만물로 변화하므로써 우주의 삼라만상과 인간이 완전히 동질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盤古神話<sup>89)</sup>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88) 여성의 생산은 할미와 관계된 지명이 전국에 무수히 깔려 있는 것으로도 입증된다. 할미산(老姑山)이니 어미산(阿未山)이니 하는 산이름들이 많은 것은 여성이 생산과 풍요를 그 산 아래 안겨다 준다는 '영원의 어머니'로서 인식되어 온 때문이다.

89) 반고신화는 중국의 천지창조신화이다. 반고는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거인으로서 살아서는 천지를 분리시켰고, 죽어서는 그 시체가 천지만물로 변화했다고 한다. 박시인(1980), 「알타이신화」, 삼중당, pp. 30~31 참고

동일한 모티프를 수용하고 있지만 문헌설화에서는 배설의 결과 역사창조의 주체가 결정된다. 문헌설화에서 배설의 결과가 王者의 生産 및 왕족에의 편입으로 나타나는 것은 중세적 질서의 주체되기를 뜻하는 것이다. 배설모티프를 수용하고 있는 일련의 문헌설화들은 중세의 산물로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관심의 영역이 자연보다는 인간사회의 구조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 있음이 반영되어 있다.

구전거인형설화에서는 배설의 결과 시집식구들이 고통을 겪는 경우 방귀쟁이며느리는 방귀로 인해 소박을 당한다. 그러나 배설의 결과 배를 따고, 장삿군들의 짐을 뺏는 등 재물을 획득하는 경우 방귀쟁이 며느리의 방귀는 복방귀로 치하받으며 시집으로 복귀하는 원인이 된다. 신참자인 며느리의 배설로 인해 집안의 위계질서가 위협받고 체면이 손상되는 것보다도 致富를 더 중요시하고 있다. 관심의 영역은 가정으로, 더욱 축소 변화되는 양상이다.

이제까지 각 장르에 나타나는 배설모티프의 변모양상과 의미를 살펴 보았다. 배설모티프는 꿈이나 속담에서도 그 형태가 나타난다. 설화가 먼저인지, 민간 속신이 우선하는 것인지 그 先後관계를 가리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문헌설화에 선유몽과 그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것이나<sup>90)</sup> 꿈에 배설물을 보면 재물을 얻는다는 일련의 속담들<sup>91)</sup>은 연원이 오래된 사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서로의 관련 속에서 유지되어 오는 신화적 모티프의 지속적 편린으로 볼 수 있다.

90) 일련은 삼국유사에 문의의 선유몽에 관한 기사를 실은 뒤 뒤에서, 문희가 보희의 꿈을 산 결과 이들을 여섯 낳았다고 나름대로 해석을 내리고 있다. 또한, 경종비가 선유몽을 꾸고 卜者에게 해석을 부탁하자 복자는 아들 낳을 꿈이라고 해몽하고 있다.

91) 꿈에 남이 똥을 주면 재물이 는다. <전국>, 꿈에 똥이 가득하면 부귀를 누린다. <충북, 충남, 경북>, 꿈에 오줌, 똥이 떨어지면 재물이 있다. <전국>, 꿈에 뒷간 위에 오르면 재물을 얻는다. <경기, 경북, 경남, 서울>등의 많은 속담이 있다. 김성배 편(1975), 『한국의 금기어·길조어』, 정음사 pp. 109~214 참고

##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건국신화 이전의 상고대에 관한 신화적 잔영이 남아 있는 거인설화와, 거인형설화로 칭할만한 일군의 장수설화의 존재양상을 고찰한 뒤 그것을 토대로 하여 거인설화와 거인형설화에 나타나는 변모양상과 그 의미를 살펴 보았다.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그동안 각 자료집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거인설화의 자료들을 규합한 뒤 그 존재양상을 고찰했다.

신성성을 상실한 뒤 구비로만 전승되어 온 까닭에 오늘날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갖게 된 거인설화의 존재양상을 밝히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외모와 행위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거인설화를 가르고 다시 이 항목 내에서 거인설화를 정리했다. 그 결과 거인설화는 외모중심형과 행위중심형의 두 형태로 대별되었다. 외모중심형의 경우 외모는 대개 크기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기때문에 더 나눌 필요가 없지만, 행위중심형의 경우 행위의 양상과 성격이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다시 산천형성형, 대결형, 사냥형의 세 하위유형으로 구별하였다. 산천형성형에서 거인은 힘과 배설에 의해 산천, 또는 건축물을 만든다. 산천은 완성되지만 성쌍기나 다리놓기로 대표되는 토목공사는 미완성되는 경우가 많다. 대결형에서는 거인과 다른 신화적 존재가 주도권 쟁탈을 벌이지만, 결과는 도전자인 거인의 패배로 끝난다. 사냥형에서는 거인부부가 등장하여 성기를 이용해서 식량을 구한다.

이와 같이 유형 분류를 한 뒤, 거인설화가 과거의 신화였다는 가정하에 제유형에 대한 신화적 시각에서의 검토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거인설화가 천지창조신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대립과 좌절의 방향으로 전승되고 있는 시련이 많은 신화임을 밝혔다. 그리고 단순설명담의 형태로 되어 있는 까닭에 거인설화의 파편담정도로만 이해되었던 외모중심형 거인설화도 교술무가의 讚神에 비견되는 신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

로 보았다.

산천형성의 일부 설화를 제외한 거인설화의 구조는 결핍으로 대표되는 고난에서 시작하여 좌절이나 해결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신성성을 상실하고 파편신화적인 전설과 민담의 형태로 변화, 전승되어 온 거인설화의 신화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설화의 전승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거인설화의 경우 전승을 가능하게 하는 주된 전승소는 모티프이다. 거인설화에는 ‘大衣’, ‘大食’, ‘排泄’, ‘힘내기’, ‘性器로 다리놓기’ 등의 여러 모티프가 나타난다. 이것은 ‘거인’이라는 특이한 인물형을 기본으로 하여 파생, 발전된 모티프이다.

이 가운데 ‘힘내기’, ‘대식’, ‘배설’의 세 모티프는 소멸되지 않고 일군의 장수설화에서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Ⅲ장에서는 거인설화의 세 모티프를 계승하고 있는 일군의 장수설화들을, 거인설화의 연계하에 “巨人型說話”로 칭하고 그 존재양상을 고찰하였다. 본고에서 거인형설화에 포함시킨 장수설화는 “오늬힘내기”, “제주도 장수할망”, “방귀쟁이들의 방귀시합”, “제주도 밥장수”, “호랑이 잡은 밥장수”, “방귀쟁이 며느리”의 여섯 가지 구전설화이다.

거인형설화 가운데 “오늬힘내기”, “제주도 장사할망”, “제주도 밥장수” 등의 설화는 고난과 좌절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방귀쟁이들의 방귀시합”, “호랑이 잡은 밥장수”, “방귀쟁이 며느리” 등의 설화에는 고난과 해결의 구조가 나타난다.

힘내기모티프를 계승한 거인형설화는 “오늬힘내기”와 “제주도 장수할망”, “방귀쟁이들의 방귀시합” 설화이고, 대식모티프를 계승한 거인형설화는 “제주도 밥장수”, “호랑이 잡은 밥장수” 설화이다. 그리고 배설모티프를 계승한 거인형설화는 “방귀쟁이 며느리” 설화이다.

Ⅳ장에서는 거인설화를 원형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거인설화와 거인형설화에 나타나는 힘내기, 대식, 배설모티프의 변모양상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보조자료로서, 관계되는 서사무가와 문헌설화도 활용하였다. 본장의 일반적인 고찰순서는 구전거인설화, 서사무가-문헌설화-구전거인형설화이다.

주체와 형태, 결과의 세 요소로 각 모티프를 살펴 본 바에 따르면, 힘내기모티프의 주체는 신인에서 장수로, 거인에서 왜소화되는 쪽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현실적인 합리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설화의 전승이 외모보다는 행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보여 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힘내기모티프의 형태는 구전거인설화와 구전거인형설화의 경우, 크기의 축소라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육체적인 힘의 직접 발휘로 나타나는데 비해 서사무가와 문헌설화에서는 이성과 지혜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차이는 武보다 文을 숭상하게 된 의식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힘내기의 결과 각 장르에서는 질서의 주체가 결정된다. 서사무가와 “오뎅힘내기”, “제주도 장수할망”의 구전거인형설화에서는 현세적 질서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패자 중심의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거인신앙 퇴조 이후를 반영하고 있는 구전거인설화에서는 거인의 패배가 부당한 것으로 그려져 있지 않다. 한편 구전거인형설화인 “방귀쟁이들의 방귀시합”에서는 힘내기의 결과보다 그 과정을 즐기는 쪽으로 되어 있다. 즉 힘내기모티프의 주체는 약화되고 이야기 자체의 흥미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대식모티프의 주체는 왜소화되는 방향이기는 하지만 범인 이상의 체구를 지니고 있다. 또 대식가들은 신인에서 장수, 半장수로 변화하고 있다. 변모의 의미는 역시 시간과 공간의 변모에 따른 현실적 합리화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식의 형태는 중세적 질서의 절대자인 왕을 제외한 모든 대식가들의 음식결핍으로 강조된다. 서사무가와 구전거인형설화인 “호랑이 잡은 밥장수”에서는 세계의 장애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서 대식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구전거인설화와 구전거인형설화인 “제주도 밥장수”에서는 세계의 장애에 부딪쳐 대식의 해결에 실패한다.

배설모티프의 주체는 신인에서 장수로 나타나며 거인의 체구는 계승되지 않고 있다. 주체의 성이 여성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은 배설의 생산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배설의 형태는 구전설화의 경우 사실적인 것이지만, 문헌설화에서는 꿈속의 일로 처

리되고 있다. 문헌설화 향유층의 현실적 사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전거인설화에서 여러 배설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배설의 결과 획득하고 있는 산천의 형태를 동질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때문이다. 문헌설화의 배설이 소변인 것은 배설의 결과 (出産을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물의 생산성은 보편적인 사실인 바, 생명의 탄생을 소변이라는 배설물의 형태로 상징한 것이다. 그런데 구전거인형설화에서 배설물이 방귀로 나타나는 것은 배설의 결과와는 무관하며, 소화에 수용된 배설모티프가 회화화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설의 결과는 산천의 형성에서 王者의 출산, 재물의 획득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대에 따른 가치의 변모가 반영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인설화에 나타나는 거인모티프를 지니고 있는 자료들을 대상으로 하여 모티프의 변모양상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좀더 거시적인 입장에서 설화를 보는 경우, 거인모티프의 계승이 구체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설화들에서도 거인설화의 잔영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를테면 구비문학대계 등의 설화자료집에는 비범한 능력을 지닌 영웅들의 단편적인 일화가 많이 실려 있다. 설화의 주체가 다소의 용력을 발휘하는 이와 같은 영웅설화는 거인모티프의 현실적인 축소양상으로 보인다. 인물의 형상화가 현실화되면서 외모는 실제 인간의 형태와 가까워지고, 용력은 남아 비범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거인설화와 영웅설화의 관련양상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 참 고 문 헌

### 1. 자료편

- 경상남도 협천댐 건설지원사업소 (1988), 「협천댐 수몰지」
- 고양군지편찬위원회 (1987), 「고양군지」
- 광양군지편찬위원회 (1983), 「광양군지」
- 김부식, 「삼국사기」, 이병도(역) (1978), 을유문화사
- Kim So-Un (1955), 「The Story Bag., A Collection of Korean Folktales, ToKyo」
- 김영돈, 현용준, 현길언 (1985), 「제주도설화집성(I)」,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김옥민편저 (1962), 「제주도지」(제1집), 제주신보사
- 김태곤, 최운식, 김진영편저 (1988), 「한국의 신화」, 시인사
- 단양군 (1982), 「내고장전통가꾸기」
- 臺灣中華書局(中華民國七十四年), 「辭海」
- 동아대학교 고전연구실편 (1973), 「역주고려사」 제八
- 문경향토지간행회 (1965), 「문경군지」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1집(전남편)
- \_\_\_\_\_ (1970),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편)
- 밀양지편찬위원회편 (1987), 「밀양지」
- 보은군 (1981), 「내고장전통가꾸기」
- 손진태 (1981), 「조선민담집」, 『손진태선생전집』3, 태학사
- \_\_\_\_\_ (1981), 「조선신가유편」, 『손진태선생전집』5, 태학사
- 신흥군지편찬위원회 (1969), 「신흥군지」
- 안악군민회 (1976), 「안악군지」
- 영변군민회 (1971), 「영변지」
- 유증선 (1971), 「영남의 전설」, 형설출판사

- 임석재(1987), 「한국구전설화」, 평안북도편 I, 평민사  
 \_\_\_\_\_(1988), 「한국구전설화」, 평안북도편 II, 평민사  
 장기근外(1973), 「세계의 신화」, 대중출판사  
 정읍군(1983), 「내고장 전통문화」  
 제주도 문화공보담당관실(1982), 「제주도지」下  
 진도군지편찬위원회간(1976), 「진도군지」  
 진성기(1959), 「남국의 전설」, 일지사 (1977), 「제주민담」, 형설출판사  
 최래옥(1979), 「전북민담」, 형설출판사  
 최문휘(1988), 「충북토속지명사전」, 최상수(1958),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최운식(1974), 「충청남도민담」, 집문당  
 충주시(1981), 「내고장전통가꾸기」  
 테오도르 H. 가스터,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 이용찬(역)(1985), 평단문화사  
 貝塚茂樹・伊藤道治, 「중국의 역사 I」, 이론과실천 동양학연구실(역)(1989), 이론과  
 실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1978~1988), 「한국구비문학대계」 82권  
 한상수(1980), 「한국인의 신화」, 문음사  
 현용준(1976), 「제주도신화」, 서문당(1980),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홍순석, 이인영엮음(1985), 「내고장 옛이야기」, 용인문화원  
 이규보, 「국역 신증 동국이상국집」(1978), 민족문화추진회  
 이상영편집(1981), 「영덕군지」  
 이신복(1981), 「한국의 설화」, 을유문화사  
 일연, 「삼국유사」, 이민수(역)(1983), 을유문화사  
 임동권(1972), 「한국의 민담」, 서문당

## 2. 논저편

- 강진옥(1980), “한국설화에 나타난 전승집단의 의식구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1983), “명의담에 나타난 인간 및 세계인식” 『민속어문논총』, 계명대출판부
- \_\_\_\_\_ (1986), “구전설화유형군의 존재양상과 의미층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민간행)
- \_\_\_\_\_ (1988), “둔갑설화에 나타난 세계인식양상” 『문학과 비평』
- 김대숙(1988), “여인발복 설화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김열규(1971),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 \_\_\_\_\_ (1971), 「한국신화와 무속연구」, 일조각
- \_\_\_\_\_ (1973), “한국과 일본의 신화—일본신화의 한반도 회귀성”, 『신동아』, 동아일보사
- \_\_\_\_\_ (1976), 「한국의 신화」, 일조각
- \_\_\_\_\_ (1982), 「민담학개론」, 일조각
- 김철준(1971), “동명왕편에 보이는 신모의 성격에 대하여” 『유홍렬박사 회갑기념논총』, 탐구당
- N. 프라이, 「신화문학론」, 김상일(역) (1978), 을유문화사
- 大林太良(1966), 「神話學入門」, 中央公論社(中公新書96)
- 멜시아 엘리아데, 「우주와 역사」, 정진홍(역) (1976), 현대사상사
- \_\_\_\_\_ 「종교형태론」, 이은봉(역) (1982), 형설출판사
- \_\_\_\_\_ 「성과 속」, 이동하(역) (1983), 학민사
- \_\_\_\_\_ 「신화와 현실」, 이은봉(역) (1985),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박시인(1980), 「알타이신화」, 삼중당
- \_\_\_\_\_ (1980), 「일본신화」, 탐구당

- 서대석(1980),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 \_\_\_\_\_ (1980), “창세기조신화의 의미와 변이”, 「구비문학」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학연구소
- \_\_\_\_\_ (1983), “고대건국신화와 현대구비전승”, 「민속어문논총」, 계명대 출판부
- 손진태(1948), “조선 고대 산신의 性에 就하여”, 「조선민족문화의 연구」
- \_\_\_\_\_ (1950), 「조선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 심정섭(1979), “삼국사기열전의 문학적 고찰”, 「문학과 지성」 제 10권 제1호, 문학과 지성사
- 에디스 헤밀턴, 「그리스·로마신화」, 이선우(역), (1985), 을지출판사
- 柳田國男, (1934), “ダイダテ坊の足跡”, 「一目小僧其の他」, 東京
- 왕 빈(1980), 「신화학 입문」, 금란출판사
- 이수자(1988), “제주도 무속과 신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민간행)
- 임동권(1964), “선문대할망 설화고”, 「제주도」 통권17호, 제주도청
- \_\_\_\_\_ (1983), 「한국민속문화론」, 집문당
- 임석재(1980), “우리나라의 천지개벽신화”, 「경학 김영돈박사 회갑기념 교육학논총」
- 임재해(1986), “설화의 현장론적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간행)
- 장기근(1974), 「중국의 신화」, 을유문고
- 장덕순(1970),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출판부
- \_\_\_\_\_ 外(1971),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 \_\_\_\_\_ (1973), “우주론·세계상”, 「한국사상대계」I 문학·예술사상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장주근(1961), 「한국의 신화」, 성문각
- \_\_\_\_\_ (1967), “한국구비문학사上”, 「한국문화사대계」, 고대민족문화연구소출판부
- \_\_\_\_\_ (1969), “제주도 천지창조설화의 문화영역성”, 「제주도」38, 제주도청

- \_\_\_\_\_ (1975), 「한국의 향토신앙」, 을유문화사
- 정재서 (1978), “《산해경》신화와 신선설화”, 「도교와 한국사상」, 한국도교사상연구회  
편, 범양출판부
- 정하영 (1983), “심청전의 제재적 근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미  
간행)
- 조동일 (1977),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 \_\_\_\_\_ (1978), “신화의 유산과 변모과정”, 「우리문학과와의 만남」, 홍성사
- \_\_\_\_\_ (1981), “한국설화의 변이양상에 관한 논평과 의견”, 「한국학연구의 성과와 그  
성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_\_\_\_\_ (1985), “구전설화에 나타난 이인의 면모”, 「한국설화와 민중의식」, 정음사
- 조셉·캠벨,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이윤기 옮김 (1985), 평단문화사
- 조지훈 (1964), “한국신화의 유형”, 「한국문화사서설」, 탐구신서3.
- 朝倉治彦・井之口章次・岡野弘彦・松前健 共編 (1963), 「神話・傳説 辭典」, 東京堂出  
版
- 조희웅 (1980), 「한국설화의 유형적 연구」, 한국연구원
- 中道悦次 (1975), 「神話と神話學」, 大東出版社
- 천혜숙 (1987), “전설의 신화적 성격에 관한 연구”, 계명대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최광식 (1981), “삼국사기 소재 老嫗의 성격”, 「사총」25
- \_\_\_\_\_ (1982), “삼신할머니의 기원과 성격”, 「여성문제연구」11집, 효성여대부설 한국  
여성문제연구소
- 최남선 (1983), 「조선의 신화와 설화」, 홍성사
- 최래옥 (1981),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일조각
- \_\_\_\_\_ (1982), “현지조사를 통한 백제설화의 연구”, 「한국학논집」, 한양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최용선 (1978), “신화에서 본 女能考”, 「건국대학술지」 22집

현길언 (1981), 「제주도의 장수설화」, 홍성사

# Abstract

## A Study on Giant Type Narratives

Kim, Young Kyu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wha Womans University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giant narratives, in which still remains the mystical residue of ancient times before the times of the myth of the foundation of a nation, and a group of the strong man narratives which can be called as giant type narratives.

Until now, the giant narratives have almost lost their divinity and has been transmitted in the forms of legends and folk narratives which contain the fragments of mythos. But originally they seem to have been our people's mythos of the creation of world. This character of the giant narratives appears ~~convergently~~ in the mythos of forming of mountains and streams which is a subordinate type of the giant narratives. And in the struggle type giant narratives, where the giant defeats in the fight with another mythical being, the situation that the divinity of the giant narratives diminishes is reflected.

In the hunting type giant narratives, the productivity of excreation which made mountains and streams changes to solve the problem of heavy eating. And the appearance centric type giant narratives, which have been regarded as having nothing to do with the mythical character because they are in the form of simple explanatory story, are recognized to have mythical character comparable with the god prasing of instructive Shamanistic

epic.

The main factor which enables the transmittance of the giant narratives is the motif. Several motifs appear which have been derived from the peculiar character type, the giant, and developed on the basis on it. It is observable that among these motifs, three motifs of 'Struggling', 'Heavy Eating' and 'Excreation' show their features in a group of the strong man narratives. These narratives which are inheriting the motifs of giant narratives are called the giant type narratives in the consideration of their relation with the giant narratives. As giant type narratives that inherit the struggling motif, there are "The Struggle between Brother and Sister", 'A mighty Old Woman in Cheju Island' and "The Farting Match of Banggujaengi". Those that inherit the heavy eating motif are "A Glutton in Cheju Island" and "A Glutton who caught a tiger" and what inherits the excreation motif is "A Daughter-in-Law Banggujaengi".

In this thesis, the giant narrative is regarded as the archetype and the changing aspects of three motifs, appearing in the giant narratives and the giant type narratives, are examined with their meaning. Related Shamanistic epic and literary narratives are used as references.

According to the consideration of each motif in the respect of three factors of protagonist, pattern and consequence, the protagonist of each motif changes from a man of god into a mighty man. The change of the physique of protagonist from hugeness to the direction of smallness is primarily due to practical rationalization and on the other hand, it is the evidence that shows that the inheritance of the narratives comes out emphasizing rather the action of the protagonist than his appearance.

The pattern of each motif is showing changes to evolve to the direction of the story itself while the scale of the event being reduced and original intention being lighted.

When the consequence of each motif is considered, change appears due to the

differences of the world view resulting from its genre. Though the same motif is adopted, the pattern and meaning of the motif varies according to its genre.

These motifs are discovered in dreams, proverbs and folklores as well as narratives. Though to know the time order of narratives and folklores, they are recognized to be the constant parts of mystical motifs which have been transmitted in their interrelation